

# 反 사 무 엘 슨

林 元 澤\*

〈目 次〉

- I. 序 論
- II. 方法論的 背景
- III. 價格理論에 있어서의 矛盾
- IV. 「新古典派總合」의 虛構性
- V. 資本主義의 將來에 관한 비전
- VI. 結 論

## I. 序 論

小宮隆太郎教授는 Robinson과 Eatwell의 共同著書인 『現代經濟學(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1973)을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Robinson의 經濟學의 內容은 極히 貧弱하며, 그녀가 批判하고 있는 新古典派理論과 比較할 바도 되지 못한다. 나는 이제야 Robinson의 『現代經濟學』이 全的으로 無益한 책이라는 것을 確信을 가지고 말하고자 한다. 初學者가 이 책을 읽는 것은 完全한 時間의 浪費이다. 그리고 普通 研究者가 이 책으로부터 얻는 것도 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著作이 英國의 케임브리지大學校에 根據를 두고 있는 Post-Keynesian派의 〈神髓〉를 提示하는 代表的인 經濟學入門書라고 한다면 Post-Keynesian School이라는 것도 將來性이 있는 經濟學의 新潮流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으며, 그 將來가 極히 危險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現代經濟學』과 같이 空疏, 粗雜, 混亂에 찬 책이 出版되어서 많은 書評者들이 그것을 優秀著作이라고 稱讚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讀者들이 읽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經濟學이라는 知的 世界에 있어서의 참으로 놀라운 現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今日の 經濟學의 混迷를 象徵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sup>(1)</sup>

元來 Robinson의 『現代經濟學』은, 小宮教授도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Robinson의 「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小宮隆太郎, 『ジョーンロ・ビンソン現代經濟學の解剖』, 1979, p. vi, 243.

랫동안의 論敵인 Samuelson의 『經濟學(Economics)』에 「對抗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Robinson의 『現代經濟學』이 小宮教授가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形便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Samuelson의 『經濟學』은 經濟學教科書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筆者는 Samuelson의 『經濟學』도 역시 形便없는 책이며, 이러한 「空疏」, 「粗雜」, 「混亂」에 찬 책이 어떻게 해서 出版될 수 있었으며, 더구나 그러한 「空疏」, 「粗雜」, 「混亂」에 찬 經濟學教科書가 1940年代에 初版이 나온 以來 1980年代에 第11版이 나오는 동안 長長 30年 동안이나 美國 아니 全世界에서 어떻게 해서 最上의 地位를 維持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다는 것을 率直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A. Levi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Samuelson은 또 經濟學에 관한 1卷의 책으로써 有史以來 最多部數를 販賣할 수 있었던 人物이다. 즉 그의 『經濟學』은 200萬部 以上이 販賣되었다. 이 教科書에서 그는 自身이 主張하는 經濟學의 <新古典派總合(neoclassical synthesis)>을 解説하고, 世界의 經濟學者들에게 用語와 概念을 統一한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sup>(2)</sup>

小宮教授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一見 深遠하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專門的인 著作 또는 論文은 어떤 意味에서는 Robinson의 『現代經濟學』과 같은 經濟學入門教科書보다 쓰는 것이 쉽다. 經濟學入門書를 쓰기 위해서는, 經濟學에 관해서, 또 現代의 經濟社會의 組織에 관해서, 그리고 經濟學의 基本的 諸概念과 理論 및 모델의 意味에 관해서, 根本에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入門書에는 著者の 經濟學에 관한 全理解가 生生히 反映되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3)</sup> 사실 筆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Samuelson은, 『經濟學』에서, 그의 「經濟學에 관한 全理解」를 生生히 披瀝해야 할 義務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2次大戰後의 世界에 있어 資本主義宗主國이 된 美國에 있어서의 頂上級 經濟學者로서의 Samuelson은 美國 아니 全資本主義國의 名譽를 걸고 그럴 듯한 經濟學教科書를 써 뱉어야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筆者는 그의 『經濟學』을 우선 蘇聯에서 出刊된 『經濟學教科書』와 比較를 해 본다. 筆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할 줄 믿는다. 그것은 美國의 레이건大統領과 比較되어야 할 첫째의 사람이 蘇聯의 브레즈네프共産黨書記長인 것과 꼭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經濟學』을 아무리 잘 보아 준다고 해도 그것이 『經濟學教科書』보다 원등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筆者의 率直한 心情이다. 『經濟學教科書』는 意識된 世界觀과 方法을 내세워 巨大한 體系를 展開하고 있는 데 대해서, 『經濟學』에는 意識된 世界觀과 方法이 없고 또 體系도 存在하지 않는다. 더구나 資本主義宗主國 美國에 있어서의 頂上級 經濟

(2) A. Levi, *Journey among the Economists*, 1973, p. 23.

(3) 小宮隆太郎, 同上, p. vij.

學者로서의 Samuelson은, 『經濟學教科書』가 必然的인 資本主義崩壞論을 展開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에 對抗해서 資本主義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自由」와 「平等」을 維持하면서 「安定成長」을 틀림없이 成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遠大한 資本主義의 將來에 관한 비전을 펴냈어야 했을 터인데 그것을 그는 成功的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중에 다시 言及하겠지만 그에 있어서는 「資本主義」에 관한 理解 自體가 엉터리로 되고 있다.) 이것은 Robinson의 『現代經濟學』이 순 엉터리라는 것 以上으로 自由資本主義陣營에게 있어서는 致命的이고 또 恥辱的인 事實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줄 생각한다.

## II. 方法論的 背景

『經濟學』을 읽어보면, 『經濟學教科書』와 반대로, 그것이 「斷片的」이고 體系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선 感知되게 될 줄 안다. 이것은 『經濟學』이 아니 Samuelson 自身이 方法論에 대해서 素養이 없다는 것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Samuelson은, 『資本論』出版 百週年 紀念式에서, 「純粹理論의 見地에서 볼 때에는 矮小한 Ricardo의 亞流(a minor post-Ricardian)에 속하며 Leontief의 投入·產出의 興味が 없지도 않은 先驅者(a not-uninteresting precursor of Leontief's input-output)」라고 Marx에 대해서 最大級の 嘲罵를 퍼붓고 있으며, 特히 그의 勞動價値論이 틀렸다는 것을 熱을 올려서 이야기하고 있다.<sup>(4)</sup> 그런데 Samuelson은 Marx가 依持하고 있는 方法論인 唯物論에 관해서는 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인가. Heimann은 方法論이 理論展開의 土臺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見解의 對立은 方法論的 背景(methodological presuppositions)으로 歸着되게 된다. 그러므로 見解의 對立도 方法論的 背景에 의해서만 調整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論爭은 對立되는 2個의 理論이 誘導되는 2個의 哲學의 보다 큰 鬭爭으로 歸着되게 된다. 結局 方法의 選擇은 크게 그것이 誘導해 내는 結果까지 決定하게 되는 것이다.»<sup>(5)</sup> (그리고 Marx가 勞動價値論을 主張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Ricardo의 亞流」라고 看做하는 것은 그의 놀랄 만한 無識을 스스로 暴露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Ricardo의 勞動價値論은 사실은 「最大投下勞動價値論」(「限界投下勞動價値論」)이며 그것은 實質에 있어서는 支配勞動價値論이 되며,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値論」과는 아

(4) P. Samuelson, "Marxian Economics as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7, p. 616.

(5) E. Heimann, *History of Economic Doctrines*, 1953, p. 17.

무런 共通點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노벨賞 受賞者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sup>(6)</sup>

方法論이 論議될 때에는, 經濟現象에 「法則」이 存在하는가 存在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선 一次的으로 論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經濟現象에 「法則」이 存在한다고 하면, 그 「法則」이 어떠한 「法則」이냐 하는 것이 다음에 二次的으로 論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經濟現象에 「法則」이 存在한다고 主張하는 立場에 그 「法則」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 싸고 2個의 立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物理法則」이 經濟現象을 支配한다고 하는 唯物論이고 또 하나는 「心理法則」이 經濟現象을 支配한다고 하는 方法論的 一元論(methodologischer Monismus)乃至 心理主義(Psychologismus)이다. 唯物論은 「物質」을 「人間意識으로부터 獨立된 客觀的 實在」(objective reality existing outside and independently of the mind of men)라고 보고 있다.<sup>(7)</sup> 그런데 史的 唯物論에 있어서는 이 「物質」이 人間生存을 위한 sine qua non[不可缺條件]인 「生活手段으로서의 物質(使用價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Marx經濟學에 있어서는 「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使用價值」 또는 「投下勞動→使用價值」라는 因果系列(物理法則)이 그 基底에 前提되고 있다. (그런데 交換에 있어서는 다만 「投下勞動」만이 役割을 하는 「必然」이라고 되고 있다.) 한편 方法論的 一元論乃至 心理主義는 社會科學을 自然科學의 延長乃至 1分科로 보고(方法論的 一元論), 그것을 自然科學의 하나인 心理學의 基礎 위에서 建設하려고 한다(心理主義). 그러므로 心理學은 「基礎學」(Grundwissenschaft)이 되게 되는 것이다. J.S. Mill에 의해서 이 方法論의 特色을 말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社會現象은 人間的 自然(人間性)의 現象이다(All phenomena of society are phenomena of human nature)……人間的 思考·感情·行動의 現象이 一定의 法則에 順從하고 있다고 한다면, 社會現象도 一定의 法則에 順從하게 된다.»<sup>(8)</sup> 이 方法論的 一元論乃至 心理主義는 古典經濟學 全般에 걸어서 그리고 또 近代經濟學의 初期(Menger, Jevons, Walras)에 있어서도 廣範圍하게 採擇된 方法論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快樂과 苦痛의 計算(calculus of pleasure and pain)」 즉 「苦痛(勞動)→快樂(効用)」이라는 心理的 因果系列이 前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그런데 交換에 있어서는 다만 「効用」만이 役割을 하는 「必然」이라고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事項은 體系的 法則定立의 經濟學은 唯物論 또는 方法論的 一元論乃至 心理主義에 立脚해 서만 成立이 可能

(6) 林元澤, 『第二資本論』, p. 686.

(7) J. Stalin, *Dialectical and Historical Materialism,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1945, p. 105.

(8) J.S. Mill, *A System of Logic*, 1930, p. 57; 拙著, p. 29 參照.

(9) W.S. Jevons, *Theory of Political Economy*, 4th ed., 1924, p. 23; 拙著, p. 80.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第3의 方法論은 經濟現象 속에 存在하는 法則을 認定하지 않으려는 方法論的 二元論(methodologischer Dualismus)乃至 프라그마티즘의 方法論이다. 이 方法論의 起源은 멀리 Kant에까지 溯及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明示的인 形態로 提示되게 된 것은 新 Kant學派의 H. Rickert와 그리고 M. Weber, Schumpeter 등에 의해서 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Keynes經濟學 以後에 發生된 모든 所謂 現代經濟學이 이 方法論 위에 立脚하고 있다고 해도 決코 過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Samuelson이 取하고 있는 方法論도, 明示的으로 言及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部類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H. Rickert는, 그의 『文化科學과 自然科學』에 있어, 「文化科學」(즉, 社會科學)은 「어떤 部分」(ein Teil)만을 取扱하여야 하며, 그 「部分」 가운데서도 「非本質的 部分」(unwesentliche Bestandteile) 또는 「無意味한 것」(das Bedeutungslose)을 取扱해서는 안되고 「本質的 部分」(wesentliche Bestandteile) 또는 「重要的 것」(das Wichtige)만을 取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本質的 部分」, 「重要的 것」을 選別하는 原理로서 「本質選擇의 原理」(Prinzip zur Auswahl des Wesentlichen) 또는 「個別化的 選擇의 原理」(individualisierende Auswahlprinzip)를 내걸고 있다. 그리고 그는 雜多한 現實 속에서 「本質的인 것」을 選擇하기 위해서는 「歷史的 客體가 價値에 關係되고 있는 것을 認識함으로써만」 즉 「價値關係의 原理」(Prinzip der Wertbeziehung)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하고 있다. 이리하여 「個別化的 選擇=價値關係」라는 Rickert 方法論의 第1命題가 여기서 成立되는 것이다. (한편 그는 「一般化的 選擇의 原理」(Prinzip der generalisierende Auswahl)에 立脚해서 自然科學이 成立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文化科學」(社會科學)은 自然科學으로부터 原理적으로 嚴然히 區分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方法論的 二元論). 그런데 또 Rickert는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歷史的 概念構成의 個人的 恣意를 除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歷史的 概念構成의 客觀性的 基礎가 되는 것은 다만 이 文化價値의 一般性 (Allgemeinheit der Kulturwerte) 뿐이다. 歷史적으로 本質的인 것은 非但 個個人的 사람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萬人에게 있어서도 有意義(für alle bedeutsam)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0)</sup> 「歷史적으로 一般的인 것은 一般的 自然法則이 아니라 文化價値이다.」<sup>(11)</sup> 이리하여 Rickert 方法論의 第2命題인 「文化價値=一般性」이 成立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Rickert의 친구 M. Weber는, Rickert의 方法論의 第1命題인 「個別化的 選擇=

(10) H. Rickert, *Kulturwissenschaft und Naturwissenschaft*, 6 und 7 Aufl., 1926, SS. 95-96; 尹明老譯, 『文化科學과 自然科學』, 176頁.

(11) *Ibid.*, S. 96; 尹明老譯, 同上, 177頁.

價値關係」를 「理念型的 概念構成」으로 改作해 버리고 말았다. 즉 「價値」를 「理念型」(Idealtypus)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M. Weber도 역시 Rickert와 마찬가지로, 「一面的」(einseitig), 「觀點」(Gesichtspunkt) 등을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M. Weber는 Rickert 方法論의 第2命題는 대체로 그냥 繼承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一面的 分析=客觀的」, 「一面的 分析은 決코 恣意的이 아니다.」, 「特殊한 一面的 觀點을 떠나서는……客觀的인 科學的 分析이라는 것이 存在하지 않는다.」<sup>(12)</sup> 等等. 그가 「유토피어의 性質을 갖는 實在의 一定要素의 思想의 高昇」으로서 規定한 「理念型」은 어디까지나 認識의 目標가 아니라 「認識手段」에 지나지 않게끔 되고 있다. 이러한 方法論을 提示한 M. Weber에 있어 「法則」의 存在가 否定되고 만다는 것은 當然한 結論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法則」의 存在를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假說的 法則의 知識은 認識手段(Erkenntnismittel)으로서만 커다란 價値를 갖고 있다.」<sup>(13)</sup> 「規則性的 把握은 認識目標가 아니라 認識手段이다.」<sup>(14)</sup> 「因果法則의 知識은 研究의 目的이 아니라 單純한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因果問題는 法則의 問題가 아니라 具體的인 因果關聯(kausale Zusammenhängen)의 問題이며, 어떠한 公式에 그 現象을 그 類例로서 속하게 하느냐 하는 問題가 아니라, 어떠한 個性的 樣相에 이 現象을 그 結果로서 歸屬시키느냐 하는 問題이다. 즉 그것은 歸屬의 問題(Zurechnungsfrage)이다.」<sup>(15)</sup> 이리하여 M. Weber에 있어 「因果法則」은 「主觀的 歸屬」 즉 「操作」의 問題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同系列의 Schumpeter는 Rickert, M. Weber가 그래도 維持하려고 애썼던 「客觀主義」를 즉 Rickert 方法論의 第2命題를 完全히 一擲하고 公公然히 「相對主義」를 標榜하고 나서고 있다. Schumpeter는 먼저 理論에 있어 問題가 되는 것은 「正當性(Richtigkeit)」이 아니라 「有用性(Brauchbarkeit)」이라고 못박아 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公公然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經濟學에 있어 그것은 決코 法則이 아니라 어떠한 種類의 經濟的 事實의 一般化에 基礎를 두고 있는 하나의 假定(Hypothese)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原理的으로 恣意的(willkürlich)인 것이다. 즉 그와 正反對의 假定을 設定해도 아무 相關이 없고 따라서 그것은 <誤謬>가 될 수 없는 것이다.」<sup>(16)</sup> (傍點筆者) 여기에 있어 理論에 있어서의 客觀性은 完全히 否定되게 되었다.

(12)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1922, S. 170.

(13) *Ibid.*, S. 175.

(14) *Ibid.*, S. 179.

(15) *Ibid.*, S. 178.

(16) J. Schumpeter, *Das Wesen und der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 2 Aufl., 1970, S. 74; 拙著, p. 42.

이와 같이 方法論에는 唯物論·方法論의 一元論乃至 心理主義·方法論의 二元論乃至 프라그마티즘의 3種類가 있는데, 唯物論·方法論의 一元論乃至 心理主義는 絕對主義·一元主義를 標榜하고 나서는 데 대해서, 方法論의 二元論乃至 프라그마티즘은 相對主義·多元主義·民主主義를 標榜하고 나선다. 그런데 Samuelson은, 前記한 바와 같이, 上記 3種類의 方法論 가운데에서 프라그마티즘을 取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最近에 Samuelson을 方法論上에서 間接的으로 批評한 사람은 Myrdal이 아닌가 생각한다. Myrdal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모든 科學의 일에는 不可避的으로 아프리오리의 要素가 介入된다. 즉 그 基底에는 價値評價(valuations)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價値評價는 우리가 事實을 觀察하고 理論의 分析을 行하는 段階에 이미 必然的으로 包含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어떠한 社會科學도 한번도 中立的(neutral)이었으며 또 單純히 事實的(factual)이었던 때가 없었다. 이들 用語의 傳統의 意味에 있어서의 客觀的(objective)이었던 때도 없었다. 研究는 항상 論理的 必然性에 의해 道德的, 政治的 價値評價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며, 研究者는 그것을 明示的으로 提示할 必要가 있다.」<sup>(19)</sup> 「價値前提(value premises)는 明示的으로 提示되어야 하며, 暗黙裡의 想定으로서 숨겨져서는 안된다.」 「價値前提는 假說的(hypothetical)인 性格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20)</sup> 「나는 研究가 客觀的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價値前提가 明示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것이 社會科學에 있어 客觀的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唯一한 意味이다.」<sup>(21)</sup> 以上에 引用된 Myrdal의 말은 그가 取하고 있는 方法論의 核心을 表現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要旨는 Rickert, M. Weber, Schumpeter 그리고 Samuelson 등이 取하고 있는 方法論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Myrdal은 自己가 取하고 있는 이러한 方法論을 스스로 「價値相對主義(valuation relativism)」라고 부르고 있다.<sup>(22)</sup> 그러면 다음에는 Myrdal이 「價値評價는 主觀的 問題」라고 하는 「價値相對主義」에 立脚해서 어떻게 Samuelson을 間接的으로 攻擊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17) Machlup은 Samuelson이 AEA會議에 있어서의 「方法論問題」에 관한 討論에 있어 그가 「非現實的인 抽象的인 모델(unrealistic, abstract models)」을 糾彈하고 있는 것을 問題로 삼고 있으며, 거기 대해서 Machlup은 Samuelson의 「卓越한 理論」도 結局 그 「非現實的인 假說」로부터 誘導되고 있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F. Machlup, *Methodology of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1978, pp. 481-483). 이 Machlup의 立言은 Samuelson이 프라그마티즘을 取하고 있다는 間接的인 證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8) G. Myrdal, *Objectivity in Social Research*, 1969, p. 9.

(19) *Ibid.*, p. 74.

(20) *Ibid.*, p. 63.

(21) *Ibid.*, p. 56.

(22) *Ibid.*, p. 77.

그러나 우리는 이에 言及하기에 앞서 Th. Kuhn이 그의 『科學革命的 構造』에 있어 闡明하고 있는 paradigm에 관한 理論을 잠시 훑어 보기로 하자. Kuhn은 우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맨 먼저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여러가지 種類의 科學의 問題에 대해서 唯一不變의 結論을 갖다 붙이는데 그것은 充分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23)</sup> Kuhn은 自然科學의 歷史를 研究하는 學者이면서도 自然現象에 있어 客觀的인 法則이 支配하고 있다는 見解를 否定하는 이와 같은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의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世界觀(ways of seeing the world)의 差異, 「科學하는 方法(ways of practicing science)의 差異」 등에 의해서 自然科學理論에도 「恣意的 要素(element of arbitrariness)」가 介入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驚倒할 만한 理論인가. 그는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를 自然科學分野에도 導入하려고 하는 것이 分明하다. 그리하여 그는 自然科學의 發達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마와 같이, 「累積에 의한 發展(development-by-accumulation)」의 形態를 取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正常科學(normal sciences)」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特定の 科學者集團(scientific group)이 一定期間 一定의 過去의 科學的 業績(즉, paradigm)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基礎로 해서 進行시키는 研究」라고.<sup>(24)</sup> 그리고 그는 paradigm을 「採擇된 모델 또는 型(accepted model or pattern)」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科學者集團」은 共通된 paradigm에 立脚해서 「正常科學」의 業績을 쌓아 올린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18世紀初에 있어 科學者들이 뉴턴의 *Principia*를 共通의 paradigm으로 삼고 物理學의 實績(「正常科學」)을 쌓아올린 것과 같이. 그러나 「變則性(anomaly)」이 發生되어 (既存의 paradigm에 立脚한) 「正常科學」이 混亂에 빠지게 되면 그 「變則性」도 능히 잘 說明해 낼 수 있는 새로운 paradigm이 確立됨으로써 「科學革命(scientific revolution)」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Kuhn은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이 形成된 paradigm에 準據해서 또 새로운 「正常科學」이 展開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 Kuhn의 paradigm에 관한 理論은, 前記한 마와 같이, 自然科學의 發展理論으로서 誕生되기는 했지만 社會科學 特히 經濟學分野에 있어서도 이 paradigm 概念이 現在 導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主流經濟學은 新古典派理論을 paradigm으로 해서 形成된 所謂 「正常科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사실 『經濟學』에는 다음의 Solow의 말이 引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新古典派理論은 분명히 하나의 科學的 paradigm이다.」(p.793) 그리고 Samuelson이 그 「科學者集團」의 代表者이며 그의 『經濟學』이 그 代表的인 教科書로서

(23) Th.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1970, pp.3-4.

(24) *Ibid.*, p.10.



指目되고 있다는 것도 말할 것 없다. 그런데 Myrdal은 主流經濟學인 이 新古典派理論의 paradigm은 「低次元의 價値評價(lower valuations)」에 立脚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Samuelson 및 其他 主流經濟學者를 批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快適한 生活을 하고 있는 美國人은 自國에 多數의 巨大한 貧困의 溪谷이 있으면서도 그것에 無關心으로 幸福하게 生活할 수 있다는 傳統의인 才能을 갖고 있으며, 그것도 極端한 데까지 가 있다. 貧者의 生活狀態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西歐社會에 있어서의 잘사는 사람들의 日常茶飯事의 일이다.」<sup>(25)</sup> 즉 「主流經濟學으로서의 新古典派理論의 paradigm은 貧困에 無關心한 그러한 範型 즉 「體制經濟學(Establishment Economics)」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主流經濟學으로서의 新古典派理論의 paradigm은 「代數式的 利用」, 「希臘文字 및 其他 記號의 利用」, 「術語上的 發明(terminological innovations)」 등을 통해서 「저허 客觀的의 아니고 도저히 客觀的의 될 수 없는 것을 客觀化하려는」 「術語的 現實逃避(terminological escapism)」, 「理論的 現實逃避(theoretical escapism)」를 試圖하고 있다고 하고, 主流經濟學으로서의 新古典派理論의 paradigm은 結局 「부르조아經濟學」이며 「거기에 속하는 學者들은 同志 사이에서만 말하게 되고 서로를 引用하면서도 其他 學者들의 文獻은 完全히 默殺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 그룹 內部에서 몇 사람은 全員의 推薦에 의해서 卓越한 存在로서 推戴받게 된다」고 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그는 Say의 法則이 얼마만큼 「低次元의 價値評價」와 關聯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美國에서 大不況이 發生되기 以前에 經濟學者는 總供給과 總需要가 均等化乃至 完全히 一致된다는 Say의 法則을 實際로 믿고 있었다……나는 20年代 後半에 이 두가지 要因(總供給·總需要)이 어떻게 一致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主流經濟學에 속하는 著名教授들에게 說明하기 위해서 실로 많은 時間을 消費했다. 經濟理論을 배우지 않고 있는 實際的인 感覺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半狂人이 아닌 사람들은, 이무도 이 Say의 法則을 믿고 있지 않았었다. 이 狀況은 나의 막내 딸이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는 것을 모르는 것은 學校先生님 뿐이더라는 것을 兩親에게 말하는 것과 꼭 같다고 할 수 있다……經濟學者가 Say의 法則을 支持했던 것은 當時의 主流經濟學이 自由放任的인 不介入政策을 取하려고 했던 것에 基因하며 그것은 또 當時의 社會에 있어 政治的으로 中心이 되고 있었던 利害(interests)와 偏見(prejudices)에 合致되는 것이기도 했다.」<sup>(27)</sup>

그리하여 Myrdal은 「高次元의 價値評價(higher valuations)」를 내세워 「人間的 尊重(res-

(25) G. Myrdal, *op. cit.*, p. 23.

(26) G. Myrdal, *Against the Stream*, 1973, p. 1.

(27) *Ibid.*, p. 4.

pect for life)」과 「平等主義(egalitarian principle)」를 標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Myrdal은, 「反主流(against the stream)」의 旗幟를 높이 쳐들고 「經濟理論의 主流은 이 問題(平等主義)로부터 關心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主流經濟學者인 Samuelson을 誹謗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自己自身은 「經濟的 社會的 實體를 平等主義의 原理의 觀點에서 研究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革新的(radical)인 著者에 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8)</sup>

Samuelson에 대해서 이와 같은 攻擊의 화살을 던진 Myrdal에 대해서 共感을 表示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한다. 筆者도 물론 그러한 사람 가운데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筆者는 「價值評價」의 差異 또는 「價值前提」의 差異에 立脚해서 Samuelson을 攻擊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攻擊은 筆者自身이 프라그마티즘의 立場에 서고 있다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筆者는 「唯物論+心理主義」의 立場에 立脚해서, 즉 經濟現象은 「物理法則」과 「心理法則」이 同時에 支配하고 있다는 立場에 立脚해서(이것은 2個의 「根元的 必然」인 「効用」, 「投下勞動」을 認定하는 立場이며 또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을 取하는 立場이 된다.) 그에 대해서 攻擊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sup>(29)</sup>

그리고 또 우리는 辯證法的, 全體論的, 歷史主義的 立場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闡明해 놓을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0)</sup>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體系的, 法則定立的인 經濟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辯證法的, 全體論的 歷史主義를 反對하는 K. Popper의 見解에 대해서도 事前에 亦是, 一擊을 加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 Popper는 우선, 「歷史主義(historicism)」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28) G. Myrdal, *Objectivity*, p. 105.

(29) 拙著, pp. 15, 99.

(30) Hegel은 「抽象的인 이것이나 저것이나」(abstrakte Entweder-oder)를 追究하는 二者擇一의 思考方式을 「青年」(die Jugend) 즉 未成熟人의 思考方式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Sowohl-als-auch)를 追究하는 思考方式을 보다 高次元의 成熟된 「具體的(konkret)」 「被媒介的」(vermittelt)인 思考方式이라고 했다(Vgl. G.W.F. Hegel, *Enzyklopädie*, §80 Zusatz.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Glockners Ausgabe, S. 582). 그러므로 「安定과 더불어 成長을」, 「한글과 더불어 漢字를」, 「自由와 더불어 安保를」 追究하는 思考方式은 Hegel의 所謂 「具體的」, 「被媒介的」 또는 「辯證法的」인 高次元의 思考方式인 데 대해서, 「安定이나 成長이나」, 「한글이나 漢字나」, 「自由나 安保나」式의 二者擇一의 思考方式은 Hegel이 至極의 輕蔑해 마지 않았던 「抽象的(abstrakt)」, 「直接的(unmittelbar)」인 幼稚한 思考方式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安定」을 위해서는 꼭 「成長」을 犧牲시켜야만 되고, 「한글」을 尊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漢字」를 「抹殺」시켜야만 되고, 또 「安保」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꼭 「自由」를 犧牲시켜야만 된다는 「非妥協的」, 「極端的」 思考方式을 擇함으로써 끝장 自衛行動을 取하는데, 이것은 Hegel式으로 말하면, 未成熟人의 思考方式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國民은 깊이 反省하고 이러한 知的 種境을 하루 빨리 脫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 「歷史의 進歩의 基底에……法則 또는 傾向의 存在를……假定하는 接近法.」<sup>(31)</sup> 「歷史主義者들은……原子論的인 方法(atomistic manner)보다 全體論的(holistic)인 方法을 取해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sup>(32)</sup> 그리하여 Popper는, 歷史主義가 社會現象 內部에 存在하고 있는 法則을 認定하고 있으며, 또 全體論을 取하고 있는 데 대해서, 自己自身은 社會現象 內部에 存在하고 있는 法則을 認定하지 않으며, 또 原子論的 方法(分析의 方法)을 取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는 歷史主義가 「方法論的 本質主義(methodological essentialism)」를 取하고 있는 데 대해서, 自身은 「方法論的 唯名論(methodological nominalism)」을 取하고 있으며, 歷史主義가 社會科學에 因果的 說明을 適用하고 있는 데 대해서, 自身은 「方法論的 個體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또는 「合理的 모델을 構成하는 zero-method」를 取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方法論的 個體主義」 또는 zero-method라는 것의 內容이 M. Weber의 「理念型的 概念構成」과 大同小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3)</sup>

물론 筆者는 Popper와 反對로 辯證法的, 全體論的, 歷史主義的, 因果的 說明方法을 取하고 있다는 것을 公言해 둔다.<sup>(34)</sup>

### III. 價格理論에 있어서의 矛盾

Samuelson의 『經濟學』에는, 프라그마티즘·操作主義의 方法論을 取하고 있는 經濟學이 모두 그러하듯이, 우선 理論上에 있어서의 「始元」이 存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arx經濟學에 있어서는 「始元」으로서 商品의 「價値」 즉 商品의 「平均投下勞動量」이 採擇되고 있고 Walras의 經濟學에 있어서는 「始元」으로서 「稀少性(rareté)」 즉 「限界效用」이 採擇되고 있는데, Samuelson의 『經濟學』에 있어서는 그러한 「始元」이 存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經濟學』에는 價値論이 存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經濟學』에 있어서도

(31) K.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1974, p. 3.

(32) *Ibid.*, p. 17.

(33) Zero-method란, 「關係되는 모든 個人의 立場에서 完全合理性(과 完全情報入收)이라는 假定 밑에서 作成된 模型을 통해서 模型行動 즉 0座標로부터 사람들의 實際行動이 얼마만큼 離脫(deviation)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測定하는 方法」을 말한다(K. Popper, *op. cit.*, p. 141). 「歷史的 研究에 있어 各個의 경우 現實이 理想型으로부터 얼마만큼 가까운가 또는 얼마만큼 먼가(wie nahe oder wie fern)를 確定지운다.」(M. Weber, *a.a.O.*, S. 191)

(34) Popper와 H. Albert 그리고 W. Adorno와 J. Habermas 사이에서 이 對決은 「分析的 科學理論(analytische Wissenschaftstheorie)」對 「辯證法的 社會理論(dialektische Theorie des Gesellschaft)」의 對決의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다. Vgl. Th. W. Adorno u.a.,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ciologie*, 9. Aufl., 1979, SS. 75, 155.

限界効用概念이 消費論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經濟學』體系의 理論的 始發點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價値論이 存在하지 않는 탓으로 『經濟學』에 있어서는 因果의 說明이 存在하지 않게 되고 말았으며 따라서 또 理論的 體系도 存在하지 않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러한 「體系의 不在」는 비단 『經濟學』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의 著書全般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The Collected Scientific Papers of Paul A. Samuelson*, I-IV도 완전히 「短篇의 收錄」에 不過하다는 것이 이것을 立證하고 있기 때문이다.

J.S. Mill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마음과 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交換)社會에 있어서는 經濟上의 利害(economical interests)에 관한 考察은 반드시 價値論과 關係가 있다. 價値의 問題에 있어 어떠한 조그마한 誤謬(the smallest errors)가 發生되어도 거기에 따라서 其他 全結論이 또한 誤謬에 빠지게 된다.」<sup>(35)</sup> 그리고 Jevons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交換理論(즉 價値論-筆者)을 완전히 理解하지 않고서는 經濟學에 관한 올바른 理解를 가질 수가 없다.」고.<sup>(36)</sup> 이와 같이 J.S. Mill이나 Jevons나 둘 다 價値論이 반드시 뚫고 가야 할(durchgehen) 關門이며 避해 갈 수 있는(entgehen) 關門이 아니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經濟學』이 이 關門을 徹底히 避해 가고 있는 덕분에, J.S. Mill의 말대로, 어떻게 「其他 全結論」이 誤謬를 범하고 있으며, 또 「經濟上의 利害」를 無視함으로써 어떻게 『經濟學』이 그가 志向하고 있는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충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Samuelson이 經濟學이 發生된 以後 줄곧 問題가 되어 온 價値論爭 즉 投下勞動價値論 對 支配勞動價値論(즉 等價交換理論 對 不等價交換理論) 또는 勞動價値論 對 限界効用價値論의 問題를 徹底히 避해 갔던 것은 그것을 解決지울 수 있는 「論理의 힘(die Stärke der Logik)」이 自己에게는 不足하다는 것을 스스로 感知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적어도 筆者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sup>(37)</sup>

價値論이 確立되고 있지 않고 있는 理由로 『經濟學』에 있어서는 貨幣論도 存在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經濟學』에 의하면, 貨幣는 「交換手段」의 機能, 「計算單位」의 機能, 「富를 保持하기 위한」 機能, 「豫備」 機能 등을 營爲하고 있다고 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經濟學』은 普遍的인 一般的인 交換手段이 金이며 왜 金이 아니면 안되는가 하는

(35)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71, p. 436.

(36) W.S. Jevons, *op. cit.* p. 75.

(37) Stalin은 Lenin이 갖고 있는 「特性」의 하나가 바로 「論理의 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J. Stalin, *Lenin und Leninismus*, 1925, S. 153). 이것은 또 Marx主義는 「論理의 힘」에 의해서만 克服될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것을 說明해야 할 터인데, 그러한 貨幣論에 있어서의 核心的인 事項이 전혀 言及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商品貨幣의 歷史에 관해서 그저 水準 以下の 記述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때 그는 商品貨幣의 歷史가 金으로 收斂되고 있으며 그 理由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闡明했어야 될 터인데 그 作業을 그는 순전히 能力不足으로 즉 「論理의 힘」의 缺乏으로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貨幣를 「萬人이 다 같이 使用하고 있는 財貨(goods of very general use)」, 「萬人이 다같이 希求하고 있는 財貨(goods of most general desire)」라고 規定한 Menger의 限界効用理論에 立脚한 貨幣論으로부터서만 貨幣의 一般的 交換手段機能이 說明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價值論)의 派生理論도 된다고 하는 理論을 이미 展開해 놓은 바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하는 限 貨幣의 一般的 交換手段機能은 說明될 수 없으며 그것을 證明해 주는 것이 곧 Marx의 貨幣論이라고 關說한 바도 있다.<sup>(38)</sup> 그런데 이 重要的 核心的인 事項이 『經濟學』에 있어서는 전혀 言及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좋다는 말인가.

다음에 또 『經濟學』은 貨幣의 價格單位가 어떻게 해서 決定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즉 1달러는 어떻게 해서 決定되는가 하는 亦是 理論經濟學에 있어서의 核心問題에 대해서도 전혀 言及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貨幣의 一般的 價值尺度機能=價格基準設定機能을, 즉 1달러가 어떻게 해서 決定되는가 하는 것을 理論經濟學上에 있어 說明해 낸 唯一無二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Marx였었다. 우리는 이 Marx의 貨幣의 價格單位에 관한 說明에다가 Marx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 「効用勞動量」 概念을 導入 補完함으로써 貨幣의 價格單位에 관한 理論을 完成시켜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sup>(39)</sup>

이렇게 『經濟學』에 있어서는 貨幣論에 관한 取扱이 엉터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Samuelson은 이 理論經濟學上에 있어서의 核心問題를 高級專門學術誌上에서 專門家들만이 理解할 수 있는 位相數學을 驅使해서 解決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痕迹도 전혀 볼 수가 없다. 結局 Samuelson에 있어서는 世界貨幣가 왜 꼭 金이어야 되며, 또 1달러는 어떻게 해서 決定되는가 하는 理論經濟學에 있어서의 基本的, 核心的인 問題는 未解決問題로서 그냥 남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經濟學』에서 展開되고 있는 價格理論도 완전히 循環理論이 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1달러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서 展開되는 價格理論은 結局 循環理論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모두 Samuelson이 뚝고 가야할 價值論을 避け 시킨 罪科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38) 拙著, pp. 163ff.

(39) 拙著, pp. 172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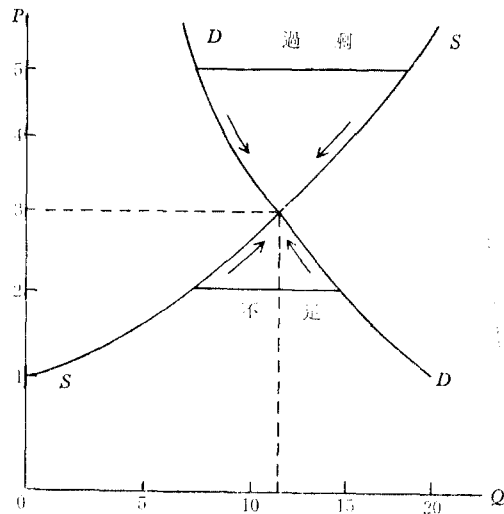
그러면 다음에는 『經濟學』에 있어 展開되고 있는 價格理論(微視經濟學)이 어떻게 엉터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經濟學』의 第4章「需要와 供給」과 第20章「需要와 供給에 의한 價格決定」에 있어서는 價格理論이 展開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前者부터 보아 내려가기로 하자.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小麥의 供給表·需要表와 그리고 需要曲線과 供給曲線の 交叉圖가 提示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表 1〉, 〈圖 1〉).

〈表 1〉 小麥의 供給表와 需要表

	可 能 價 格	需 要 量	供 給 量	價 格에 的 壓 力
A	\$5	9	18	↓ 下向 中立
B	4	10	16	
C	3	12	12	
D	2	15	7	↑ 上向
E	1	20	0	



〈圖 1〉

이것을 통해서 Samuelson은 市場價格 5달러가 均衡價格 3달러보다 높을 때에는 價格은 下落運動을 일으키고, 反對로 市場價格 2달러가 均衡價格 3달러보다 낮을 때에는 價格은 上昇運動을 일으켜 結局 均衡價格으로 到着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 「需要와 供給에 의한 價格決定」을 數式으로 表現하면  $D=D(P)$ ,  $S=S(P)$ ,  $D(P)=S(P)$ 와 같이 될 것이다

( $D$ 는 需要量,  $S$ 는 供給量,  $P$ 는 價格).

Samuelson은 이 基本的인 價格決定理論을 마치 平行線의 公理와 같이 하나의 自明의 公理로 取扱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이 들렸어도 이것 하나만은 틀릴 까닭이 없다는 式으로 設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筆者는 이 價格決定理論은 다음과 같은 根本的인 不分明과 誤謬를 包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D=D(P)$ ,  $S=S(P)$ 는 어떠한 先行理論으로부터 因果的 說明에 의해서 誘導되어야 하는데 Samuelson의 『經濟學』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先行理論으로부터 誘導되지 않고 있는 價格理論(그것은 換言하면 「價值論」으로부터 出發해서 「貨幣論」을 通過하지 않고 있는 價格理論이 된다)을 Böhm-Bawerk는 「曖昧와 模糊로 充滿(eine Fülle von Unklarheiten, Verschollenheiten)」되고 있으며, 「空虛하고 無意味한 公式(eine leere und nichtsagende Formel)」이라고 하고 있다.<sup>(40)</sup> (2) 다음에  $D=D(P)$ ,  $S=S(P)$ ,  $D(P)=S(P)$ 의 形態의 價格理論 즉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理論이 아니라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理論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D=D(P)$ ,  $S=S(P)$ ,  $D(P)=S(P)$ 의 形態의 價格理論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理論인가 하면, 이 類型의 價格理論에 있어서는, 總供給量 18 보다도 均衡量 12가 으레히 적게 마련이며 따라서 또 으레히 供給過剩 6이 發生되는데, 그래도 아무런 損失도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生産者가 同時에 消費者도 되고 있으므로 그 供給過剩 6을 집에 가져와서 自家消費해서 消費者剩餘를 取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生産되는 商品은 生産者가 消費해서는 안되는 「全量」, 「即刻」, 「最大價格」으로 販賣되어야 할 資本主義的 商品 즉 「完全商品」이 아니라 「半商品」이라는 것이다.<sup>(41)</sup> (3) 따라서 「供給은 뒤집은 需要(supply as reverse demand)」<sup>(42)</sup>가 되며 供給曲線은 「實質費用曲線」이 아니라 「代替費用曲線」이 되는 것이다. Samuelson에 있어서는, 그의 「論理的 힘」의 不足으로 因해서, 「代替費用曲線」과 「實質費用曲線」의 區分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그리고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우격다짐으로 成立시키려고 할 때에는 「限界實質費用」 概念의 導入이 不可避한데 ( $P=MC$ 의 生産量이 最大利潤

(40) E. von Böhm-Bawerk, *Positive Theorie*, I, S. 290; 拙著, p. 112. 筆者는  $D=D(P)$ ,  $S=S(P)$ ,  $D(P)=S(P)$ 를 因果的 說明에 의해서 誘導해 내기 위해서 『第二資本論』의 3分の 1(236頁)을 消費했다.

(41) 拙著, p. 240.

(42)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2nd ed., 1968, p. 490; 拙著, p. 122.

을 발생시킨다고 되고 있으므로), 生産者는 生産할 때 「限界實質費用」이 아니라 「平均實質費用」에 立脚해서 生産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限界實質費用」概念을 導入한 價格理論은 結局 非現實的인 理論이 되고 만다는 것이 곧 우리의 見解이다. Samuelson은 「搾取」라는 用語는 「辭典」에는 있어도 現實的으로는 그런 것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限界實質費用」概念도 『經濟學』책에는 나타나고 있어도 企業者의 帳簿에는 나타나지 않는 概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經濟學』에서 展開되고 있는 價格理論은 美國의 頂上級 經濟學者의 理論치고서는 論理的으로 너무도 粗雜하고 너무도 洗鍊되지 않고 있는 理論이라고 筆者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Samuelson이 그러한 價格理論 즉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支持하고 있는 限 Marshall의 價格理論 즉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P=P(Q)$ ,  $K=K(Q)$ ,  $P(Q)=K(Q)$ )」은 완전히 無視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K$ 는 平均費用,  $Q$ 는 生産量을 表示하고 있음). 사실 Samuelson은 Marshall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以前에 Alfred Marshall은 名聲의 市場에서 過大評價(overvaluation in the market for reputations)되고 있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Marshall은 이 集團의 政治經濟學者의 代表라는 것을 疑心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Marshall은 지금에 있어서는 時代에 뒤떨어지고(old)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時代에 있어서는 굉장한 賢者였었다.」<sup>(43)</sup> 우리는 Samuelson의 이 말은 그의 Marshall에 대한 놀랄 만한 無識을 表示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 하면 Samuelson은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P=P(Q)$ ,  $K=K(Q)$ ,  $P(Q)=K(Q)$ )」이야말로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資本主義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이라는 것을 自身の 「論理의 힘」의 不足으로 因하여 認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P=P(Q)$ 는 生産量  $Q$ 가 「全量」, 「即刻」, 「最大價格」으로 販賣되는 資本主義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을 表示하고 있으며, 거기 대해서  $K=K(Q)$ 는 生産量  $Q$ 에 對應하는 平均實質費用  $K$ (이것은 企業者의 帳簿 속에 있는 概念이다.)를 表示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4)</sup> 사실 차차 우리가 關說할 豫定으로 있지만 Marshall은 지금도 살고 있지만 Samuelson은 「벌써 時代에 뒤지고 있으며」 또 그야말로 「名聲의 市場에서 過大評價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를 唐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Marshall의 價格理論은 「部分」均衡理論이므로

(43) P. Samuelson, "Economists and the History of Ideas," *The Collected Scientific Papers of Paul A. Samuelson*, II, p.1513. 「어떤 時代에 있어 Alfred Marshall은 인플레이션價格으로 過大評價되고 引用되고 있었다(At one time Alfred Marshall was overpraised and quoted at an inflated price.)」 (*Ibid.*, p.1502)

(44) 拙著, pp.422-442.



덜 優秀하고 Walras의 價格理論은 「一般」均衡理論이므로 더 優秀하며, Walras야 말로 「모든 時代를 통한 가장 偉大한 經濟學者」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點이다.<sup>(45)</sup> 사실 Walras는, 그가 말하고 있는 대로, 偉大한 經濟學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A. Smith, Ricardo, Malthus, J.S. Mill, Jevons 等の 價値論을 「時間의 相 밑에서」(「歷史의 相 밑에서」가 아니라), 즉 「最短期」, 「短期」, 「長期」等の 觀點下에서 總合해서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完成시켜 놓은 그의 偉大한 業績으로 비루어 보아(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한 사람은 그 以外에 아무도 없다.)<sup>(46)</sup>, 그를 Walras의 밑에 둔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Marshall은 「生産費原理과 限界効用原理는 一切를 支配하는 構成部分이다. 그 各各은 各各의 한쪽 날에 比할 수 있다.»<sup>(47)</sup>고 말함으로써 限界効用價値論과 投下勞動價値論을 結合시킬 수 있었으며, 그리고 「最短期」에 있어서는 Malthus乃至 Jevons를 繼承하고, 「短期」에 있어서는 Malthus乃至 Jevons와 Ricardo를 結合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長期」에 있어서는 Malthus乃至 Jevons와 J.S. Mill을 結合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辯證法의 奧妙한 眞理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내세운 「the many in the one, the one in the many (多即一·一即多)」라는 標語에 의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深遠한 眞理가 「論理의 힘」이 不足한 Samuelson에 의해서 理解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줄 생각한다. 그가 「모든 時代를 통해서 가장 偉大한 經濟學者」로 極讚했던 Walras의 「一般」均衡理論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_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는 適用될 수가 없고, 單純商品生産  $W - G - W'$ 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1) 一般均衡理論이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되고 있고, (2) 「實質費用」의 概念이 나타나 있지 않는 대신에 「代替費用」의 概念이 나타나고 있으며, (3) 生産要素價格과 生産物價格이 「同時的」均衡을 이루고 있으며(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_m}{A} \dots P \dots W' - G'$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貨幣資本  $G$  즉 「實質費用」 즉 生産手段과 勞動力의 價格 즉 生産要素價格( $P_m$ 와  $A$ 의 價格의 合計)이 生産物  $W'$ 의 價格보다 論理的으로도 時間的으로도 先行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4) 「生産費의 法則」에 의해서 利潤이 零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sup>(48)</sup>

(45) Samuelson, *op. cit.* p. 1501.

(46) Schumpeter도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즉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하고 있는데, 그 供給曲線이 「實質費用曲線」이 아닌 「代替費用曲線」이 되고 있다는 缺點을 갖고 있다. J. Schumpeter, *a.a.O.*, S. 219; 拙著, p. 336.

(47)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p. 820.

(48) O. Lange는 「Walras方程式體系는 資本主義經濟에도 單純商品生産에도 無差別的으로 適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Walras의 體系는 資本主義에 있어서는 適

從來 經濟學史에 나타나고 있는 主要價格理論 즉 Jevons·Walras·Wicksell의 相對價格決定理論, Böhm-Bawerk의 價格理論, Walras·Hicks·Patinkin의 一般均衡理論, Marshall의 絕對價格決定理論 等은 各各 어떠한 「歷史的 段階」에 있어 妥當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表 2>.

<表 2> 具體的 價格理論

<p>I.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math>D = D(P)</math>  <math>S = S(P)</math> 「代替費用」이 適用된다.  <math>D(P) = S(P)</math></p>	<p>A. 物物交換          Jevons, Walras, Wicksell의 相對價格決定理論          B. 單純商品生産          Böhm-Bawerk의 價格理論          Walras·Hicks·Patinkin의 一般均衡理論</p>	<p>a. Marx의 等價交換理論          b. Malthus의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p>
<p>II.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math>P = P(Q)</math>  <math>K = K(Q)</math> 「實質費用」이 適用된다.  <math>P(Q) = K(Q)</math></p>	<p>C.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Marshall의 價格理論</p>	<p>c. A.Smith·Malthus의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p>

즉 價格理論은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과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의 2個類型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는데, 前者 즉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은 物物交換  $W-W'$ 과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데 대해서 後者 즉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Marshall의 價格理論)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代替費用」은 前者 즉 物物交換  $W-W'$ 과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理論에 있어 適用되어야 하며, 「實質費用」은 後者 즉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理論에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또 上記表는 物物交換  $W-W'$ 에 있어 成立되는 Jevons·Walras·Wicksell의 相對價格決定理論은 역시 物物交換  $W-W'$ 에 成立되는 Malthus의 支配勞動價值論·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과 「同一物」이 되며, Marx의 等價交換理論은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 즉 社會的 分業과 技術的 分業이 아직 發達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即刻的인 勞動의 自由移動」이 可能하던 段階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支配勞動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을 類(genus)로 하는 하나의 種(species)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편 單純商品生

用될 수가 없고 다만 單純商品生産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가 있는 것이다. Cf. O. Lange, "Marxian Economics and Modern Economic Theory," *Marx and Modern Economics*, edited by D. Horowitz, 1968,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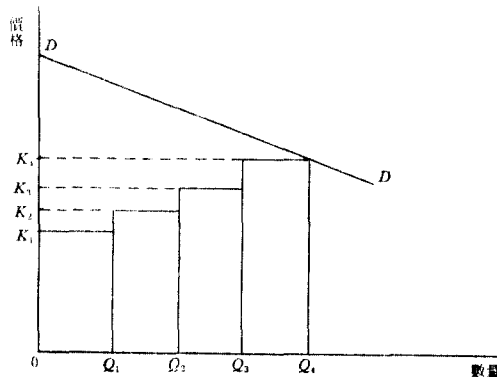
産  $W-G-W'$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Böhm-Bawerk의 價格理論과 Walras-Hicks-Patinkin의 一般均衡理論도 역시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으로 轉換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Marshall의 價格理論은 Malthus의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과 「同一物」이라는 것을 上記하는 나타내고 있다.

지금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이 어떻게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dots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G-W < \frac{P}{A} \dots P \dots W'-G'$ 를  $K \times Q - W < \frac{P}{A} \dots P \dots W' - P \times Q$ 와 같이 바꾸어 쓰고,  $OK_1, OK_2, OK_3, OK_4$ 를 이 產業에 參加하고 있는  $A, B, C, D$  등 4個 企業의 平均費用이라고 하고,  $OQ_1, Q_1Q_2, Q_2Q_3, Q_3Q_4$ 를  $A, B, C, D$  4個 企業의 生産量,  $OP$ 를 生産된 商品의 販賣 價格이라고 한다면 下記諸表式

$$\begin{aligned}
 A\text{企業 } & OK_1 \times OQ_1 - W_1 < \frac{P}{A} \dots P \dots W'_1 - OP \times OQ_1 \\
 B\text{企業 } & OK_2 \times Q_1Q_2 - W_2 < \frac{P}{A} \dots P \dots W'_2 - OP \times Q_1Q_2 \\
 C\text{企業 } & OK_3 \times Q_2Q_3 - W_3 < \frac{P}{A} \dots P \dots W'_3 - OP \times Q_2Q_3 \\
 D\text{企業 } & OK_4 \times Q_3Q_4 - W_4 < \frac{P}{A} \dots P \dots W'_4 - OP \times Q_3Q_4
 \end{aligned}$$

은 <圖 2>를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圖 2>는 Marshall의 價格理論을 表示하



<圖 2>

고 있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圖 2>는 다음과 같은 數式으로 表現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49)

$$P=P(Q).$$

$$K=K(Q).$$

$$P(Q)=K(Q).$$

이것은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고 있는 價格決定理論」이라는 點에 있어 Marshall의 價格理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P=P(Q)$ 는 生産者가 自己가 生産해 낸 商品을 「全量」, 「即刻」, 「最大價格」으로 販賣하는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K=K(Q)$ 는 生産量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rightarrow W \leftarrow \frac{P}{A} \dots P \dots W' \dots G'$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平均實質費用과의 關係를 表示하고 있다. Samuelson이 『經濟學』에서 提示했어야 할 價格理論은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어서는 안되고 바로 上記한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圖 2>에 表示되고 있는 供給曲線이 「代替費用曲線」이 아니고 「實質費用曲線」이라는 것도 말할 것 없다. (50)

이러한 視點에서 본다면, 『經濟學』에서 展開되고 있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은 單純商品生産  $W \rightarrow G \rightarrow W'$ 에서 成立될 수 있는 Böhm-Bawerk의 價格理論과 同一類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經濟學』에서는 價值論과 貨幣論이 確立되고 있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需要와 供給에 의한 價格決定」(同書 第20章의 章名)이 「先行理論」으로부터 因果的 說明에 의해서 誘導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 事項은 그 「先行理論」 가운데에는 Marshall의 「需要價格」概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第20章 「需要와 供給에 의한 價格決定」을 보면, 거기서는 「時代에 뒤떨어지고 있고 名聲의 市場에서 過大評價되고 있는」 Marshall의 「一時的 均衡」, 「短期均衡」, 「長期均衡」에 관한 理論이 紹介되고 있는데, 우습게도 그에 관한 說明이 Marshall式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Samuelson은,  $P=P(Q)$ 의 說明에 있어서의 이것이야말로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인데 그 理由는 그것은 企業者가 自身의 生産量을 自家消費을 하지 않고 「全量」, 「即刻」, 「最大價格」으로 販賣할 때의 價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K=K(Q)$ 의 說明에 있어서의, 이것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rightarrow W \leftarrow \frac{P}{A} \dots P \dots W' \rightarrow G'$ 에 있어서의 生

(49) 拙著, p. 420.

(50) <表 2>의 「具體的 價格理論」은 우선 첫째로 「全體論的 價格理論」을 意味하고 있다. Hegel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眞理는 全體」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具體的 價格理論」은 「歷史的 價格理論」을 意味하고 있다. 「具體的, 全體的인 것」은 「歷史의 相 對에서」 스스로를 顯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具體的 價格理論」의 完成은 「價格理論을 最終的으로 그리고 永久히 解決」지워 놓은 것이 되게 될 것이다(拙著, p. vi).

產量은 항상 平均實質費用과 結付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說明했어야 될 터인데, 數式의 操作의 技術에 있어서는 能한 그도 辯證法的, 全體論的, 歷史主義에 立脚한 「論理의 힘」의 不足 때문에 이러한 「論理」를 展開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Marshall의 「最短期」, 「短期」, 「長期」의 理論을 그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最短期」, 「短期」, 「長期」의 理論으로 「改惡」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1)</sup> 그런데 이 問題는 워낙 重要하고 核心的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失敗하면 그에 대한 補償은 다른 理論分野에서 웬만한 커다란 收穫을 얻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言及해 두어야만 하겠다.

#### IV. 「新古典派總合」의 虛構性

以上에서 우리는 『經濟學』에서 展開되고 있는 價格理論이 그 論理的 基礎가 弱했기 때문에 因果的 說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거기에서 提示되고 있는 價格理論이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이 아니고 單純商品生産  $W-G-W'$ 에서 通用될 수 있는 前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Sweezy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古典經濟學者들은 終始一貫해서 單純商品生産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을 分辨하지 못했다는 點에서 그들에게는 歷史的 展望(historical perspective)이 缺如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sup>(52)</sup> 『經濟學』第3章 「討議問題」에는 學生들에게 「Marx의  $W-G-W'$ 와  $G-W-G'$ 의 理論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問題가 提出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問題는 學生들에게 提出될 問題가 아니라 Samuelson이 自己自身에게 提出하여 거기 대해서 明確한 答을 確保했어야 할 그러한 問題였

(51) 「케임브리지大學校」의 巨頭 Robinson도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의 含意를 모르고 있다. Cf. J. Robinson &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p. 164; 朱宗樞譯, 『現代經濟學批判』, p. 212. (이 譯書에는 Robinson의 「韓國의 讀者들에게」 주는 序文이 掲載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케임브리지大學校」에 根據를 두고 있는 Post-Keynesian의 價格理論이 「價格이 需要에 의해서 決定(demand-determined)된다기 보다는 基本的으로 生産에 의해서 決定(production-determined)된다고 하는 古典派政治經濟學의 傳統에 완전히 追從하고」 있는 狀況을 생각할 때, 「케임브리지學派의 始祖」인 Marshall의 「悲劇」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A.S. Eichner, *A Guide to Post-Keynesian Economics*, 1979, p. 40). 우리는 서슴치 않고 Post-Keynesian을 「前 Marshall的」이라고 糾彈하고자 한다.

(52)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p. 166. O. Lange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Marx經濟學의 卓越한 特色은 Marx가 綿密하게 資本主義와 單純商品生産을 區分했던 制度上의 規定에 있다.」(O. Lange, *op. cit.*, p. 81)

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近代經濟學 또는 現代經濟學이 內包하고 있는 曖昧·非現實性·矛盾等도, 古典經濟學과 같이 近代經濟學 또는 現代經濟學이 單純商品生産  $W-G-W'$ 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를 분간 못하고 있는 데에 그 決定的인 主要原因이 있다고 적어도 筆者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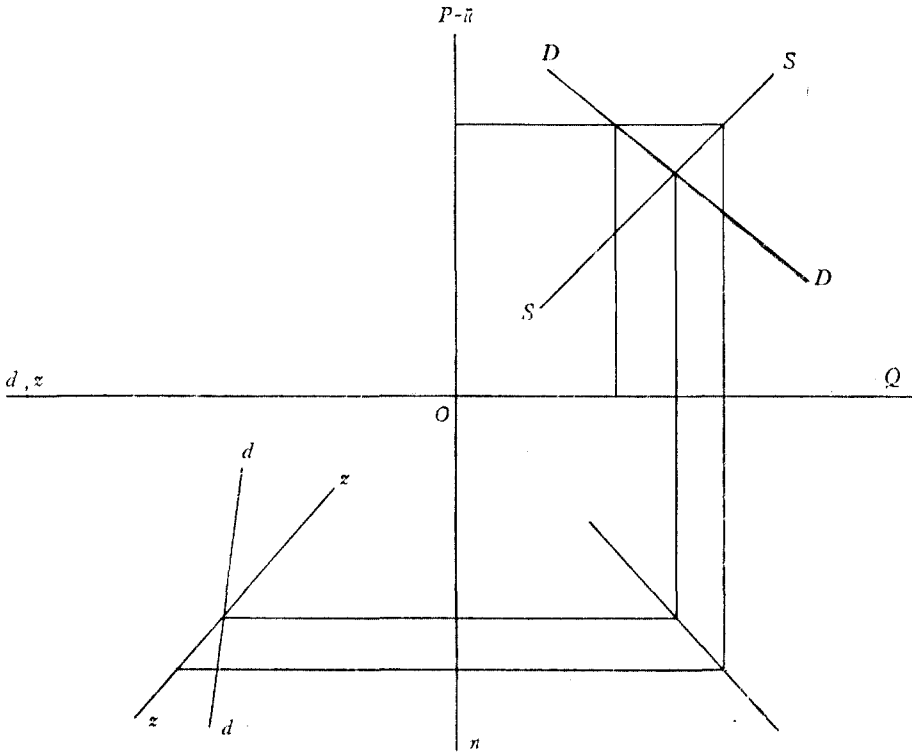
다음에는 우리는 이 잘못 設定된 價格理論이 어떻게 所得理論과 非齊合的 關係에 있게 되는가—또는 結局 같은 말이 되지만, Samuelson이 펴낸 「新古典派總合」이라는 構想이 어떻게 論理的으로 矛盾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取扱해 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取扱하기 前에 『經濟學』에서 내걸고 있는 「資本」理論에 관해서 잠시 言及해 보기로 하자.

흔히 理論經濟學에 2個의 泥沼가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하나는 價値論이고 또 하나는 資本理論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Samuelson이 진정 野心에 찬 學者였었다면 이 2個의 問題를 解決하려고 덤비 들었어야만 될 터인데 그는 그러한 意欲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資本理論에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Marx의 資本理論과 Böhm-Bawerk의 資本理論의 2個가 있다. Samuelson은 이 2個의 巨大한 資本理論을 超越的 立場에서 縱橫無盡으로 批判 檢討하고 將來의 資本理論의 向方을 提示했어야 될 터인데, Samuelson은 그러한 核心的인 作業에는 能力不足을 自認했던지 전혀 着手을 하지 못하고 있다. Samuelson이 Marx의 投下 勞動價値論이 틀렸다고 攻擊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但 그가 代替價値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골픈 일이며, 또 『經濟學』 第11版에 있어서는 Marx 攻擊의 熱氣가 웬일인지 상당히 冷却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Samuelson은 Marx의 資本理論에 관해서는 積極的인 論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슬그머니 그는 Böhm-Bawerk의 資本理論을 取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Marx의 投下 勞動價値論은 「投下 勞動量」이라는 「實質費用」을 「價格」으로 昇華시켰다는 意味에서 謬謬를 범하고 있으므로 (「價格」은 역시 「限界効用」에 의해서 說明되어야 한다.) 攻擊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Marx의 資本理論만은 잘 된 理論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을 吸收 繼承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踏襲했다고 해서 Marx主義者가 또는 共產主義者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여기서 學問의 世界에 있어 「全部나 無나」의 態度를 取하는 것이 얼마만큼 危險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하여튼 『經濟學』에 있어 Böhm-Bawerk의 資本理論이 選擇됨으로 因하여 『經濟學』에 있어서의 資本理論이 現實과의 密着性을 喪失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다음에는 『經濟學』에 展開된 所得決定理論 즉 巨視理論을 보기로 하자. 第12章 「所得決定」에는 周知의  $I=S(Y)$ 로서 表示되는 所得決定理論이 提示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微視經濟學과 巨視經濟學** 사이에는 아무런 對立도 없다.」고 말하고(第20章), 「우리들은 **巨視經濟學**의 諸問題를 어느 程度 解決했으므로, **微視經濟學**의 古典的인 여러 問題들이 또 다시 우리들의 關心對象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混合經濟 (mixed economy)**의 管理되는 **巨視經濟學**의 밑에 있어서는 낡은 古典派의 **微視經濟學**의 原理가 또 다시 適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또 다시 適用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巨視經濟學**이 古典派에서도 볼 수 있었던 **必要需要額**의 前提를 確認했기 때문이며, 世界가 自動的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第18章). 이 말 가운데에는 비록 「**新古典派總合**」이라는 用語는 使用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곧 「**新古典派總合**」의 思想을 表示하고 있다고 解釋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sup>(53)</sup>

『**經濟學**』에서는 「**微視經濟學과 巨視經濟學** 사이에는 아무런 對立도 없다.」고 記述되고 있는데, 『**經濟學**』에서 展開되고 있는 **微視理論**으로부터 **巨視理論**이 誘導될 수 있으므로,



<圖 3>

(53) 「**新古典派總合**」을 Samuelson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그것은 **微視經濟學**도 **巨視經濟學**도 包含하고 있다. 그 要點은 財政金融政策을 活用함으로써 Keynes의 有效需要原理를 **新古典派** 모델(**微視經濟學**)의 틀에 맞추는 데 있다.」(P. Samuelson, "A Brief Post-Keynesian Survey," *The Collected Scientific Papers*, II, p. 1544)

우선 外形上으로는 兩者 사이에 아무런 矛盾·對立도 없는 것같이 보일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해서 所得決定理論이 誘導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圖 3>에 있어 第1象限에는 그 產業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이 提供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이 進行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第3象限에는 雇傭量  $n$ 에 對應하는 그 產業의 總需要額曲線  $d$ 와 總供給額曲線  $z$ 가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短期를 前提로 하고 있으므로 生産量  $Q$ 와 雇傭量  $n$  사이에는 一義的인 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關係를 表示하고 있는 것이 第4象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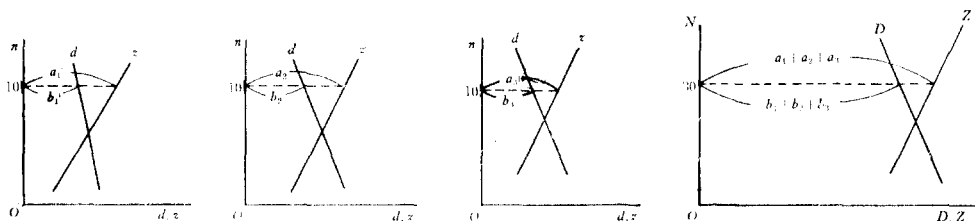
그리고  $Y$ 軸에는 價格  $P$ 로부터 單位當 使用者費用  $\bar{U}$ 를 控除한 것  $P - \bar{U}$ 가 表示되고 있다고 한다. 그럴 때

$$\text{總需要額} = (P - \bar{U}) \times \text{需要量}$$

$$\text{總供給額} = (P - \bar{U}) \times \text{供給量}$$

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總需要額  $d$ 는 그 產業의 可能總收入이, 總供給額  $z$ 는 그 產業의 總支出額(賃金+利潤)이 各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各產業의 總需要額  $d$ 와 總供給額  $z$ 를 集計하면 Keynes의 總需要價格  $D$ 와 總供給價格  $Z$ 가 誘導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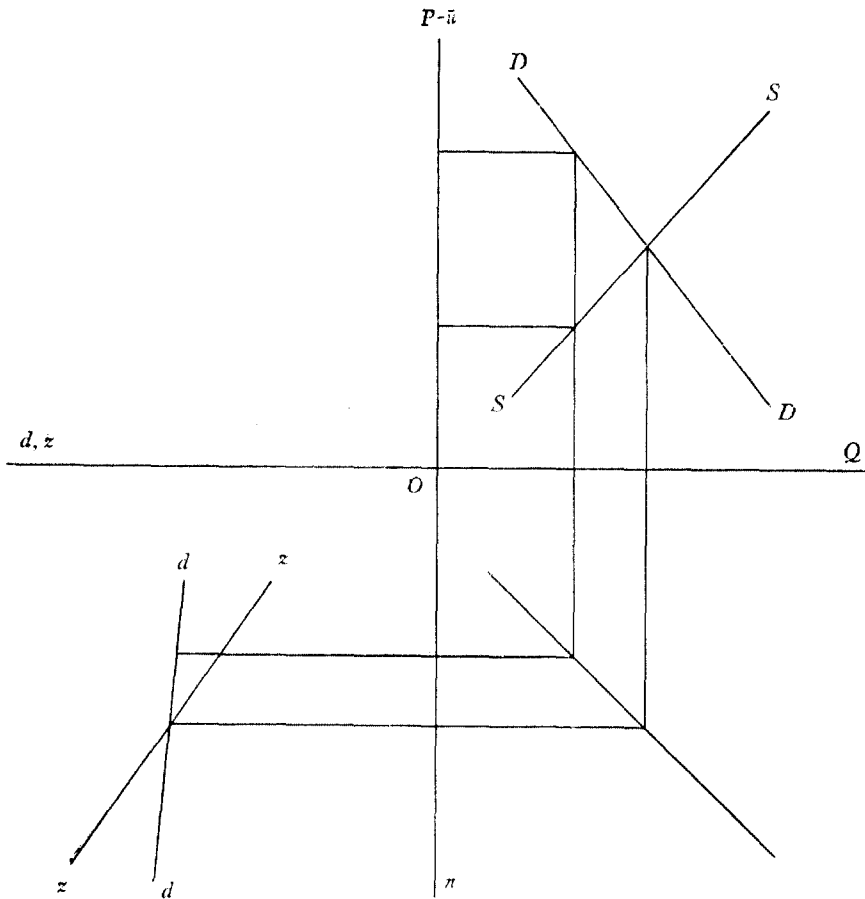
<圖 4>

이와 같이 해서 所得決定理論은 價格決定理論으로부터 誘導될 수 있게 되며, 「巨視的인 所得決定은 微視的인 價格決定의 集計의 結果이다.」라는 하여튼 外形上으로는 아무런 瑕疵가 없는 理論展開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 안다. 그러나, 前記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된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은 企業者가 진혀 產出해 낼 수 없는 「限界實質費用」概念을 導入하고 있으므로 바로 이 點에서 이 理論은 妥當性을 잃게 된다고 筆者는 主張하고자 하는 바이다.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科學者가 一般人을 說得시키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런 支障이 없지만, 經濟學에 있어서는 經濟學者가 經濟擔當者(企業家 또는 勞動者)를 說得시킬 수 없는 理論을 만들어 낼 때에는



항상 그 이론은 後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에 있어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 반드시 「供給量-均衡量=供給過剩」이 發生되는데 이러한 想定은 적어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는 어울리지 않는 想定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想定은 生産者가 同時에 消費者도 되고 있으며 商品이 販賣되어도 좋고 販賣 안되면 自家消費해도 괜찮다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는 想定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Keynes의 有效需要의 理論을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으로부터 아주 쉽게 그리고 合理的으로 誘導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음에 提示하고자 하는 바이다. <圖 5>에 있어 第1象限에는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이 進行되고 있다고 하고, 그 밖의 狀況은 앞의 케이스와 꼭 같다고 한다. 그럴 때에는 1産業에 있어



<圖 5>

$$\text{總收入額} = (\text{限界需要價格} - \bar{U}) \times \text{生産量}$$

$$\text{總支出額} = (\text{限界供給價格(平均費用)} - \bar{U}) \times \text{生産量}$$

이 될 것이다(〈圖 5〉). 그리고 이 때에도 各産業의 總收入額  $d$ 와 總支出額(賃金+利潤)  $z$ 를 集計해서 Keynes의 總需要價格  $D$ ·總供給價格  $Z$ 를 誘導해 낼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價格」과 「平均費用」이라는 企業者들이 充分히 納得할 수 있는 概念만이 使用되고 있다는 것에 注意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이 理論은 充分한 現實性을 지닐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生産者에 의해서 自家消費되지 않고 生産량이 「全量」, 「即刻」, 「最大價格」으로 販賣되는 「完全商品」 즉 資本主義的 商品이 前提되고 있다. Keynes는 自己의 恩師인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으로부터 그의 有効需要의 理論을 誘導해 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54)</sup> 但 Keynes는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 誘導過程을 『一般理論』에 있어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있다. 自己의 獨創力을 誇示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러하다고 한다면 Keynes는 學者로서의 良心을 저버렸다는 것과 또 하나 「恩師」에 대한 背恩忘德이라는 二重의 罪過를 범했다고 적어도 筆者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Keynes가 「恩師」 Marshall을 「惡黨」 Say의 徒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理論上에 있어서도 전혀 틀린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이 「不完全雇傭均衡理論」이라고 한다면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도 꼭 같이 「不完全雇傭均衡理論」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Samuelson은 「新古典派總合」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價格理論과 所得理論의 「結合」을 意味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錯覺이라는 것을 말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前記한 바와 같이,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과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은 「同一物」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삼스러이 「結合」되어야 할 아무런 必要性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으로부터의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으로의 移行」이 그러면 잘되었느냐 또는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言及해 보기로 하자. 結論부터 먼저 말하면 그 「移行」(Keynes는 그 節次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 方向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總供給價格 = 企業의 總支出 = (限界供給價格(平均費用) -  $\bar{U}$ ) × 生産量」 가운데에는 그 生産物을 生産하는 데 投入된 賃金費用(但 使用者費用은 約束에 따라서 控除된다.)과 더불어 그 生産物이 販賣됨으로써만 入手될 수 있는 超過利潤까지도 包含되고 있

(54) 生産手段價格決定理論을 最初로 完成시켜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비로 Keynes였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Keynes는 그 理論展開에 있어서도 恩師 Marshall의 手法에 따라서 「數量→價格」의 接近方法을 取하고 있다. 拙著, p. 670.

으며, 이것도 先拂되는 賃金費用과 같이 先拂되는 利潤費用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 하여

$$Z_t = A_t + B_t = C_t + S_t$$

가 誘導되는 것이다. ( $A_t$ 는  $t$ 期の 賃金,  $B_t$ 는  $t$ 期の 利潤을 表示하고 있다.)

이러한 方向을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이 取함으로써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은 완전히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으로부터 誘導되는 剩餘價值論에 立脚한 셈이 되며, Keynes는 Marshall의 弟子인 同時에 本意아니게도 Marx主義者도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해 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使用者費用  $U$  즉 減價却費와 原材料費用(再投資需要)을 控除한 「 $t$ 期の 利潤이  $t$ 期の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돈다」고 하는 모든 理論은 結局 Marx式의 投下勞動價值論으로부터 誘導되는 剩餘價值論에 立脚하게 된다는 것을 強力히 主張하고자 한다. 여기서 만약 「 $t-1$ 期の 利潤(再投資需要를 除外)이  $t$ 期の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돈다」고 하는 理論을 取한다면 이것은 곧 Malthus·Sismondi·Marshall式의 支配勞動價值論·不平等交換理論으로부터 誘導되는 剩餘價值論에 立脚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Keynes는, 世界史的으로 重大한 이 岐路에서, 말로는 自己는 Malthus主義者라고 하면서도, Malthus·Sismondi·Marshall의 方向을 取하지 않고 Marx의 方向을 取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그의 有効需要의 理論이 곧 바로 Marx式의 再生産表式으로 表示될 수 있다는 點에서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第1年度에

$$I \quad 4,000C_1 + 1,000V_1 + 1,000M_1 = 6,000W_1$$

$$II \quad 1,500C_2 + 750V_2 + 750M_2 = 3,000W_2$$

와 같은 再生産表式이 있다고 한다.

이 表式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I \quad 4,000C_1 + 1,000V_1 + 300M_1C + 700M_1K = 6,000W_1.$$

$$II \quad 1,500C_2 + 750V_2 + 200M_2C + 550M_2K = 3,000W_2.$$

여기서  $700M_1K$ ,  $550M_2K$ 는  $1,000M_1$ ,  $750M_2$  가운데에서 消費로 도는 部分,  $300M_1C$ ,  $200M_2C$ 는  $1,000M_1$ ,  $750M_2$  가운데에서 投資로 도는 貯蓄部分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때에는 第1年度末에 가서는  $4,000C_1 + 300M_1C + 1,500C_2 + 200M_2C$ 는  $6,000W_1$ 에 대한 購買力으로 들게 되고, 한편  $1,000V_1 + 700M_1K + 750V_2 + 550M_2K$ 는  $3,000W_2$ 에 대한 購買力으로 들게 될 것이다. 즉  $t$ 期の 利潤이  $t$ 期の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도는 것으로 되고 있다( $Z_t = A_t + B_t = C_t + I_t(S_t) = D_t$ ). 여기서 Keynes의 定義에 따라 貯蓄은 조금도 追加可變資本이 되지 않고 全額 投資로만 돈다고 假定했다.

그리하여 第2年度初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I \quad 4,300C_1 + 1,000V_1.$$

$$II \quad 1,700C_2 + 750V_2.$$

그리고 이때 第3年度初에 있어서의 豫想投資額(事前投資額)( $I$ )이 400이라고 하고 또  $\frac{S}{Y} = \frac{1}{8}$ 이라고 한다면  $I = S(Y)$ 에 따라서 第2年度末에 가서는

$$I \quad 4,300C_1 + 1,000V_1 + 1,100M_1 = 6,400W_1$$

$$II \quad 1,700C_2 + 750V_2 + 350M_2 = 2,800W_2$$

만큼의 生産이 行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表式은 또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가 있다.

$$I \quad 4,300C_1 + 1,000V_1 + 300M_1C + 800M_1K = 6,400W_1.$$

$$II \quad 1,700C_2 + 750V_2 + 100M_2C + 250M_2K = 2,800W_2.$$

이리하여  $4,300C_1 + 300M_1C + 1,700C_2 + 100M_2C$ 는  $6,400W_1$ 에 대한 購買力으로 돌게 되고, 한편  $1,000V_1 + 800M_1K + 750V_2 + 250M_2K$ 는  $2,800W_2$ 에 대한 購買力으로 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t$ 期の 利潤이  $t$ 期の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돌는 것으로 되고 있다 ( $Z_t = A_t + B_t = B_t = C_t + I_t(S) = D_t$ ). 여기서 貯蓄 400이 「事後投資」( $I$ ) 400으로 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frac{S}{Y} = \frac{1}{8}$ 이 되고 있으므로  $I = S(Y)$ 가 表式에서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第3年度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I \quad 4,600C_1 + 1,000V_1.$$

$$II \quad 1,800C_2 + 750V_2.$$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은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으로 부티 誘導된 剩餘價値論에 立脚하고 있으며, 즉 「 $t$ 期の 利潤(再投資需要를 控除)이  $t$ 期の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돈다.」는 式의 理論展開가 되고 있으며, 더구나 投資가 所得을 決定한다는 理論은 第1部門 中心의 Marx의 表式과 그 趣向이 완전히 一致된다고 볼 수 있다. (55)

(55) 우리는 Keynes가 「 $t$ 期の 利潤이  $t$ 期の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돈다.」는 것을 前提한 탓으로, 「Keynes는 Marx經濟學者」였다는 것을 證明했다고 생각하는데, Marx의 表式과 Keynes의 表式の 差異點은, (1)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貯蓄( $S$ )→投資( $I$ )」(貯蓄先行說)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후 Say의 法則에 立脚하고 있는데 대해서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事前投資( $I$ )→貯蓄( $S$ )→事後投資( $I$ )」(投資先行說)가 되고 있고, (2)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可變資本이 年年增加되고 있는데 대해서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Keynes의  $S=I$ 에 따라서, 可變資本이 固定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Guilder가 내세우고 있는 「供給重視의 經濟學(SSE)」도, 그것이 Say의 法則을 取하고 있는 限 「 $t$ 期の 利潤이  $t$ 期の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돈다.」는 立場에 立脚하게 되므로, 「供給重視의 經濟學」도 結局 Keynes經濟學과 마찬가지로 Marx經濟學의 亞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Say의 法則은 供給은 需要를 만들어 낸다는 命題는 여전히 옳다. 따라서 財貨의 一般의 過剩이란 있을 수 없다.」(G. Guilder, *Wealth and Poverty*, 1981, p. 51). 그런데 Keynes經濟學

그러하여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과 그에 立脚한 剩餘價值論을 極力 排擊하고 있는 Samuelson도 사실은 自己도 모르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充實한 「矮小한 Ricardo의 亞流」인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과 그에 立脚한 剩餘價值論의 信奉者(즉 「亞流의 亞流」)였었다는 것이 判明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I=S(Y)$ 는 『經濟學』을 構成하는 中心命題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Samuelson은  $I=S(Y)$ 가 「Leontief의 投入·産出의 興味가 없지도 않은 先驅者」의 表式과 完全一致되고 있다는 것을, 역시 「論理의 힘」이 弱해서 모르고 있다.)  $I=S(Y)$ 가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으로부터 誘導되는 剩餘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即刻 理解될 수 있는 事項이 아니다.<sup>(56)</sup> 케르세우스는 怪物을 追跡하는 데 魔帽을 必要로 했다.  $I=S(Y)$ 의 正體를 追求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어도 그것을 쓴 사람들만은 볼 수 있는 어떠한 魔帽이 必要한데 이 경우 그 魔帽이 되는 것은 올바른 價值論과 그 위에 立脚한 剩餘價值論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무릇 價值論·剩餘價值論에는 다음의 4個類型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생각한다. (1) 投下勞動價值論系列에 속하는 Ricardo式 剩餘價值論, (2) 投下勞動價值論系列에 속하는 J.S. Mill式의 剩餘價值論, (3) 역시 投下勞動價值論系列에 속하는 Marx式의 剩餘價值論과 (4) 支配勞動價值論에 立脚한 Malthus·Sismondi·Marshall式의 剩餘價值論이다. Böhm-Bawerk가 展開한 「限界効用價值論에 立脚한 剩餘價值論」은 어떤 면에서는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한 剩餘價值論과 대단히 類似한 側面도 갖고 있으나 Malthus·Sismondi·Marshall式의 支配勞動價值論에 立脚한 剩餘價值論과 보다 더 가까운 類型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限界効用價值論에 立脚한 不等價交換理論」으로서 取扱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付記해 두기로 한다.<sup>(57)</sup> 以上은 剩餘價値의 本質解明을 통해서 본 經濟理論의 類型인데,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이들 4個類型의 特色을 極히 簡略하게 말해 본다면, (1) Ricardo式의 剩餘價值論은 減價償却費와 原料費가 곧 利潤이 된다는 理論 「 $C=M$  또는  $C(M)+V$ 의 도그마」가 그 核心이 되고 있으며,<sup>(58)</sup> (2) J.S. Mill의 剩餘價值論은  $C+V+M$

이 「 $I \rightarrow S \rightarrow I$ 」를 내걸고 있는 데 대해서 「供給重視의 經濟學」은 Schumpeter의 「創造的 破壞」를 들고 나오는 差異가 있다.

(56) Fan-Hung은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이 Marx의 表式과 많은 「共通點」을 갖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Cf. Fan-Hung, "Keynes and Marx on the Theory of Capital Accumulation, Money and Interest," *Marx and Modern Economics*, edited by D. Horowitz, 1968, p. 121.

(57) 拙著, p. 577.

(58) M. Dobb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Ricardo의 利潤에 관한 取扱方式은 나중에 Marx의 批判을 받게 되었다. Ricardo는 Marx가 〈不變資本〉이라고 불렀던 것을 전혀 理解하지 못했다는 批判을 받게 되었다.」(M. Dobb, *Theory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1973, p. 21)

의 定式은 간신히 確立해 놓았으나, 剩餘價値의 本質解明이 안되고 있으며, (3) Marx의 剩餘價値論에 있어서는, 「 $t$ 期의 利潤이  $t$ 期의 生産物을 購買할 수 있다.」고 되고 있으며, (4) Malthus·Sismondi·Marshall式의 支配勞動價値論에 立脚한 剩餘價値論에 있어서는 剩餘價値는 「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인 同時에 그것은 또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勞動者의 勞動生産力과 賃金の 不等價交換의 差額」도 된다는 理論構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 $t-1$ 期의 利潤이  $t$ 期의 生産物을 購買할 수 있다.」고 되고 있다.<sup>(59)</sup>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經濟學』에 한 때 華麗하게 登場했던 「新古典派總合」 즉 「Marshall의 價格理論으로부터」의 Keynes의 所得理論의 誘導(이 立言은 어디까지나 Keynes·Samuelson에게 好意的으로 擴大解釋한 말이나)에 관한 構想은 그 뿌리를 캐보면 Marx의 剩餘價値論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理論으로부터는 一般的 恐慌論이 나올 수 없고 部分的 恐慌論 밖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結局 「新古典派總合」이라는 理論展開는 잘못된 paradigm이라는 우리의 最後의 判決이 여기서 내리지게 될 줄 안다.

여기서 이 節을 끝맺고 싶으나 끝맺기 前에 하나의 蛇足を 붙이기로 하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Keynes가 「世界史的인 重大한 岐路에서」 Malthus·Sismondi·Marshall의 路線으로부터 Marx의 路線으로 急旋回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그러면 Malthus·Sismondi·Marshall의 路線으로 순조롭게 理論을 展開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단약에 Keynes가 Malthus·Sismondi·Marshall의 路線을 取했더라면 社會的 總資本의 循環은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가 있을 것이다.

$$G_t - W < \frac{P}{A} \dots P \dots W_t' - G_t'$$

한편 Keynes가 實際로 取했던 Marx의 路線을 表示해 보면 이 경우에도 社會的 總資本의 循環은

$$G_t - W < \frac{P}{A} \dots P \dots W_t' - G_t'$$

(59) 「利潤=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을 主張하는 新古典派도 그리고 Sraffa도 「 $C=M$  즉  $C(M)+V$ 의 도그마」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다 같이 「前 Marx의」인 그리고 「前 Marshall的」인 Ricardian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은 「資本의 價格( $C$ )」을 表示하고 있으므로 「 $C=M$  즉,  $C(M)+V$ 」가 되고 있으며, Sraffa의 경우에 있어서는  $(A_a P_a + B_a P_b + \dots + K_a P_k) (1+r) + L_a w = A P_a$ 와 같이 外形上으로는 一旦  $C$ 와  $M$ 이 分離되고 있으나, 「利潤이 生産手段에 대해시 支拂되는 것(paying the profits on its means of production)」으로 되고 있으므로 역시 Ricardia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狀況을 記號로 表示하면,  $C(1+M/C)+V$ 가 될 것이다. (P. Sraffa,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pp. 12-13) Robinson은 經濟學에 있어서의 「2大革命(two great intellectual upheavals)」으로서 Keynes革命과 또 하나 Sraffa에 의한 「古典的 利潤論의 復活(revival of classical theory of profit)」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古典的 利潤論」이 바로 Ricardo의 利潤論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J. Robinson,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1978, "Preface")

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外形上 同一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 2個의 資本循環圖式에 있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後者의  $G_t$  가운데에는  $t$ 期の 生産物  $W_t'$  속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이 말하자면 先拂利潤의 形態로서 包含되고 있는 데 대해서 前者의  $G_t$  가운데에는 그것이 包含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 $t$ 期の 利潤이  $t$ 期の 生産物  $W_t'$ 에 대한 購買力으로 둔다.」고 되고 있는 데 대해서,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고 「 $t-1$ 期の 利潤이  $t$ 期の 生産物  $W_t'$ 에 대한 購買力으로 돌게 된다.」고 되고 있다.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이 指示하는 대로, 總供給額=總需要額이 되며 部分的 過剩生産現象 밖에 成立될 수 없지만,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X_1 - D) + (X_2 - C) = S - I + \Delta B$$

가 成立되고 ( $X_1$ ,  $X_2$ 는 生産手段總供給額·消費財總供給額,  $D$ 는 總投資需要,  $B$ 는 利潤,  $\Delta B = B_t - B_{t-1}$ ) 一般的 過剩生産의 必然的 成立이 誘導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0)

## V. 資本主義의 將來에 관한 비전

『經濟學』에서 이 以外에도 理論上으로 問題될 만한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 1.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

『經濟學』은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을 取하고 있다. 『經濟學』第27章 「生産理論과 限界生産力」에는 다음과 같은 定式이 設定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勞動의 價格, 土地의 限界價値生産力=土地의 價格. 以下, 要素가 얼마 있어도 꼭 같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記載되어야 할 또 하나의 生産要素價格 즉 生産手段 즉 所謂 「資本」의 價格이 漏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資本의 價格」이라는 定式이 거기에 당연히 記載되고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왜일인지 漏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理由를 即刻 알 수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利潤」이라고 이미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生産函數  $Y = F(K, N)$ 에서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  $\frac{dY}{dK} \times P$ 는 利潤이 되고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  $\frac{dY}{dN} \times P$ 는 賃금이 된다고 通說은 關說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에 있어서의 하나의 重大한 混亂이 發生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은 資本의 「價格」 즉 生産手段의 「價格」을 表示하고 있는가, 아니면 「利潤」을 表示하고 있는가. 原則대로 말하면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은 「資本」 즉 生

(60) 拙論文, 「새로운 再生産表식의 構想」, 『經濟論集』, 第V卷 第1號, 1966年 3月 參照.

生産手段의 「價格」을 表示해야 하며 「利潤」을 表示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이 「資本」 즉 生産手段의 「價格」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利潤」의 發生은 어떻게 說明해야 할는지—바로 이 點에 있어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은 壁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을 取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Malthus·Sismondi·Marshall의 支配勞動價値論·不等價交換理論에 立脚한 剩餘價値論도 取하고 있는 筆者는 다음과 같이 해서 이미 이 問題를 解決해 놓은 바 있다.<sup>(61)</sup>

1企業에 있어서의 1生産物의 總價格=生産手段의 限界價値生産力(價格)×生産手段의 數量  
+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雇傭量.

限界內企業에 있어서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賃金+正常利潤+超過利潤.

限界企業에 있어서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賃金+正常利潤.

여기서 그 產業의 賃金は 그 產業에 있어서의 限界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에 의해서 決定되며, 따라서 超過利潤도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이 限界企業의 그것보다 더 큰 그 產業에 있어서의 限界內企業에 있어서만 發生된다는 不等價交換理論이 展開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62)</sup>

그러면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이 「利潤」을 表示하고 있다고 하는 理論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에 대한 우리의 答은 다음과 같다.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의 見地에서 볼 때 그것은 確實히 誤謬를 범한 理論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誤謬의 樣態가 Ricardo式의  $C=M$  또는  $C(M)+V$ 의 도그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新古典派의 剩餘價値論 또는 生産函數의 利潤理論은, 利潤을 直接的으로 「資本」 즉 生産手段에만 對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Ricardo式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한 剩餘價値論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며, 따라서 또 그것은 「 $C=M$  또는  $C(M)+V$ 의 도그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上記한 바와 같은 Ricardo式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한 剩餘價値論을 取하고 있는 新古典派의 剩餘價値論은 Marx式 投下勞動價値

(61) 拙著, pp. 479-485.

(62) 「生産物의 價値와 生産手段의 價値는 一致된다.」라는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과 同一內容을 갖고 있는 歸屬理論을 誘導해 낸 Böhm-Bawerk도 利潤發生을 說明하기 위해서는 上記理論을 實質的으로 修正하는 時差理論을 導入하는 誠實性(Samuelson에서는 볼 수 없는)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時差理論에 의하면 「生産手段(「將來財」)의 價値는 항상 生産物(「現在財」)의 價値보다 작다.」는 것이다. 「生産要素(勞動)의 市場價格은 항상 그 勞動이 生産해 내는 生産物의 價格보다 작다.」(E. von Böhm-Bawerk, *Positive Theorie des Kapitals*, I, S.386) 즉 「賃金은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우리의 理論과 一致되고 있다. 拙著, p. 569.



論에 立脚하고 있는 剩餘價值論을 取하고 있는 Keynes의 有效需要의 理論과는 非齊合的 關係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Keynes의 有效需要의 理論과 新古典派의 剩餘價值論 또는 生産函數의 利潤理論을 同時에 取하고 있는 Samuelson은 理論적으로 自己分裂되고 있다는 것을 역시 「論理의 힘」의 不足으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 「搾取」

『經濟學』에는 다음과 같은 言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言)이 있다고 해서 그 具體的인 現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幼稚한 일이다. 〈一角獸〉(unicorn)라는 用語가 있다고 해서 머리에 뿔을 달은 猨소같은 것이 어떠한 正글 속에 있는 것같이 생각하며, 〈完全神〉이라는 用語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幼稚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搾取〉라는 말(言)이 辭典에 있다고 해서 經濟學을 안 배운 사람도 알 수 있는 簡單한 意味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第27章) 그리고 Oscar Lange가 生産手段의 所有者가 利潤이라는 分配分을 받는 것을 「搾取」라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 Samuelson은 대단히 興奮하면서 그러한 見解는 「價值判斷(value judgment)」에 속하며 「科學的인 代案(alternative scientific finding)」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pp. 507-508)

Samuelson은 커크·더글러스와 토니·커티스가 共演하는 『스파르타쿠스』라는 映畫를 보았을 줄 안다. 그 映畫는 「搾取」당하는 奴隸의 慘狀을 그린 映畫이다. 그 映畫를 보고서도 Samuelson은 「搾取」의 現實性을 믿지 않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Samuelson은, Friedman과 같이, 「搾取」는 古代·中世에만 있었으며 交換經濟에 있어서는 存在하지 않는 것이라고 主張하려고 하는 것일까. (63) A. Smith는 「搾取」가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明示적으로 記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獨占價格은 항상 購買者로부터 搾取할 수 있는 또는 購買者가 즐거이 주려고 하는 最高價格(the highest which can be squeezed out of the buyers, or which they will consent to give).」(64) Marshall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需要價格으로부터 供給價格을 控除한 殘餘가 獨占收入(monopoly revenue)이 된다.」고. (65) A. Smith의 「獨占價格」은 Marshall의 「需要價格」과 同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 Smith나 Marshall이나 둘 다 超過利潤(Marshall이 「獨

(63) 「自由主義社會에 있어서는 經濟去來는 自發적으로 行해진다. 雙方이 다 利益을 얻고 있으므로 搾取란 있을 수 없다.」(『日本經濟新聞』, 昭和 55年 9月 23日, フリードマン教授講演內容) 여기서 Freedman은 가장 核心的인 事項에 있어 誤謬를 범하고 있다. 그는 交換에 있어 效用面에 있어 「消費者剩餘」가 發生되면서도 同時에 「利得損失」이 發生된다는 것 즉 不等價交換이 行해진다는 것을 역시 「論理의 힘」의 不足으로 困하여 認識못하고 있는 것이다. 拙著, p. 142 參照.

(64) A. Smith, *Wealth of Nations*, I, p. 68.

(65) A. Marshall, *Principles*, p. 479.

占收入」이라고 말한 것)이 購買者의 消費者剩餘를 미끼로 삼아서 獲得되는 「不等價交換을 통한 不拂勞動」이라는 極히 日常的인 事實을 確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Samuelson은 「不等價交換에 의한 利潤發生에 관한 理論」을 排擊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Marx의 剩餘價值論(「等價交換에 의한 利潤發生에 관한 理論」)을 排擊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Samuelson은 「搾取」라는 用語가 Marx의 「辭典」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고 A. Smith의 「辭典」에 벌써 나오고 있었던 用語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어야만 되었을 줄 생각한다. 「一部 사람들이 主張하는 바에 의하면, 人間 以外の 資源은 費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人間の 勞力과 機能만이 모든 價値의 源泉이며, 土地라든가 機械라든가의 費用에 根據를 둔 超過價値(extra charges based upon the cost of land or machinery)는 財產所有者가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에 立脚해서 被搾取勞動者大衆으로부터 搾取해 낼 수 있는 資本主義的 剩餘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Karl Marx와 John Locke에까지 逆及될 수 있는 傳統的 勞動價値論이다.」(p. 595)

前記한 바와 같이, 社會科學 特히 經濟學은, 自然科學과는 달리, 普通人的 常識에 벗어나는 主張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勞動者들이 賃金引上을 위해서 企業者들과 團體交涉을 하고 있는 것이나, 消費者가 價格의 不當한 引上에 抗拒해서 不買運動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그들 勞動者·消費者들이 「損失」을 보고 있다고 스스로 意識하고 있고 때문인데, 이러한 事態는 現代資本主義下에서는 日常茶飯事로 되고 있는 現象이다. 이 때 Samuelson이 勞動者·消費者에 대해서 「利潤은 土地라든가 機械라든가의 費用에 根據를 둔 超過價値」(즉 「利潤은 資本의 限界價値生産力」)라는 Ricardo式 剩餘價値論을 내걸고 당신네들이 느끼고 있는 「損失意識」(「被搾取意識」)은 「辭典」에나 있는 단순한 「말(言)」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것은 實際로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事態가 벌어지게 될 것인가.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그래도 地球는 움직인다(Eppur si muove).」고 외친 갈릴레오 혼자자가 옳았고 全世界가 틀릴 수 있지만 經濟學에 있어서는 Samuelson 혼자만이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現象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끔 되고 있는 것이다.<sup>(66)</sup> 아니 Marx經濟學에서는 그러한 經濟學者들을 가리켜 부르는 絶妙한 用語 즉 「부르조아經濟學者」라는 用語가 있다는 것을 Samuelson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사실 이러한 Samuelson의 發言에 의해 刺戟을 받아 見解는 Myrdal도 「價値中立」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主流經濟學은 「理

(66) 「正統經濟學者들은 그들을 除外할 모든 사람들이 緊急하고 直面하고 있다고 느끼는 大問題를 無視하고 있다는 理由로써 두들겨 맞는다.」(J. Robinson,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p. 11; 邊衡尹編, 『反主流的 經濟學』, p. 78).

論的 現實逃避」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편 Linder는 Marx經濟學의 立場에 立脚해서 *Anti-Samuelson*이라는 책까지 쓰고 있는데, 그 理由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arx主義의 妥當性을, 그 抽象的인 革命的 特色을 標榜해서가 아니라, Marx經濟學만이 어떻게 現代資本主義를 解明할 수 있으며 부르조아經濟學은 왜 그것을 못하는가를 證明함으로써, 主張하는 것이 우리가 意圖하는 바이다.」<sup>(67)</sup> 여기서 Linder는 「革命的 指針」으로서의 Marx主義는 排擊하지만 대신 「現實分析用具」로서의 Marx經濟學은 取할 수 있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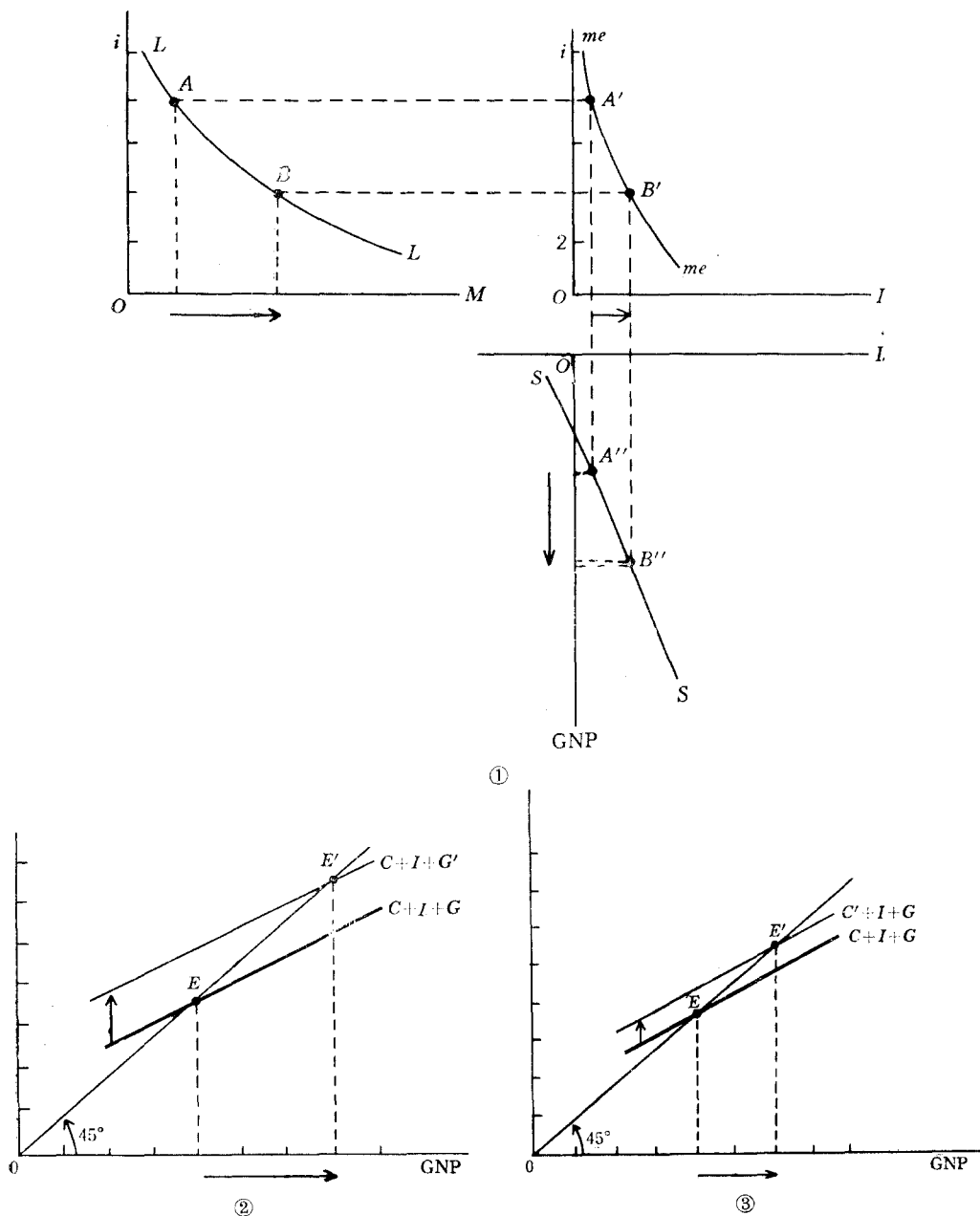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한다. Ricardo式 剩餘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는 Samuelson 더 나아가서 新古典派 그리고 Sraffa 等의 理論은 그 理論의 衣裳이 아무리 華麗하다 해도 「前 Marx的」, 「前 Marshall的」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搾取」라는 말을 使用하지 않는 것이 資本主義를 「擁護」하는 方途이고 「搾取」라는 말을 使用하는 것은 資本主義를 「顛覆」하려고 하는 方途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Marx經濟學이 하나의 主要據點을 占據하고 있는 現在 段階에 있어서는, 時代錯誤的일 뿐더러 도리어 逆效果를 發生시킬 憂慮마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美國版 Marx主義라고 할 수 있는 Radical Political Economics를 發生시켜 놓은 主要原因의 하나가 主流經濟學乃至는 新古典派理論이 裸身の 임금님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位相論·集合論까지 動員시켜 가면서 作成해 놓은 虛僞模型(Myrdal의 所謂「理論的 逃避主義」)에 그들이 틀림없이 不快感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Marx의 搾取論을 克服하는 길이 Marx의 剩餘價值論으로부터는 部分的 恐慌論 밖에는 誘導될 수 없는 데 대해서, Malthus·Sismondi·Marshall의 搾取論 또는 資本主義의 不等價交換理論으로부터서만 一般的 恐慌論이 誘導될 수 있게 된다는 理論을 展開함으로써만 開拓된다는 것을 그는 왜 몰랐던 말인가. 그리고 「搾取」의 事實을 無視함으로써가 아니라 「搾取」의 事實을 率直히 認定하고 「搾取」를 極小化시킴으로써 資本主義를 維持할 수 있는 方案을 그는 또 왜 摸索하지 못했던 말인가.

### 3. 資本主義의 將來에 관한 비전

『經濟學』은, 1980년에 나온 第11版에 있어서도, 資本主義의 將來에 대해서 대체로 樂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資本主義初期부터 골치거리가 되고 있던 景氣循環의 最惡의 影響 結果는 이미 過去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循環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小規模의 變動이라든가 在庫循環같은 것을 갖고 있다. 어떤 點

(67) M. Linder, *Anti-Samuelson*, I, 1977, p. xi.

이 달라졌는가 하면 經濟가 變動한다는 옛날부터 있던 傾向은 여전히 있으나, 다만 그것이 擴大되어서 大不況을 겪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現代의 混合經濟는 周期的 恐慌과 驅步式 인플레이션을 阻止시키기 위한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을 갖고 있다. 이것은 過



〈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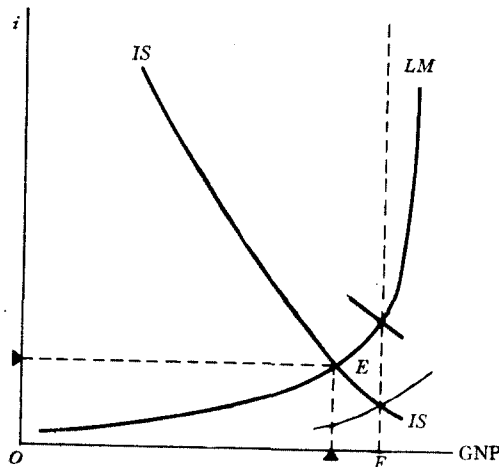
剩生産 및 過少消費의 恐怖를 덜 수 있게 했으며 軍事的 帝國主義的 計劃에 의해서 購買力을 動員할 必要를 없게 하였다. 但 所得不平等과 微視經濟學水準에 있어서의 獨占 및 其他 事情의 不完全의 諸問題가 아직 未解決로 남고 있다.」(第18章)

Samuelson은 「Keynes派模型(Keynesian model)」을 「大不況의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도 適用될 수 있는 接近方法으로서 設定하고, 이로부터 不況克服政策으로서, ① 中央銀行이 貨幣量( $M$ )을 增加시킴으로써 利子率( $i$ )을 低下시키고 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投資( $I$ )增加를 圖謀하는 金融政策( $C+I+G \rightarrow C+I'+G$ )과 ② 政府支出增大( $C+I+G \rightarrow C+I+G'$ ), ③ 減稅에 의한 消費增加( $C+I+G \rightarrow C'+I+G$ ) 등의 財政政策 등은 不況을 克服할 수 있는 充分한 威力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圖 6)>. (第18章)

그런데 또 한편 그는 「貨幣主義와 所得分析의 總合」을 摸索하고 있다. (第18章) 즉 그는  $M \rightarrow i \rightarrow I \rightarrow GNP$ 의 過程이나  $M \rightarrow MV \equiv GNP$ 의 過程이나 「相異한 表現方法(different models of language)으로 되고 있지만 同一事實(the same facts)을 表示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Samuelson은

$$C+I+G \equiv MV = PQ$$

라는 定式을 確立하고 있다. (第41章) 그리고 또 그는 金融政策은  $LM$ 曲線의 移動에 의해서 財政政策은  $IS$ 曲線의 移動에 의해서 表現하고 있다<(圖 7)>. 이에 관해서 그는 다음과



<圖 7>

갈이 말하고 있다. 「Hicks-Hansen diagram은 財政政策과 金融政策, 所得決定의 理論, 거기다가 또 貨幣理論의 全部를 總合하고 있는 데 成功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貨幣主義者와 Keynes派의 巨視經濟理論을 總合하는 데도 成功하고 있다.」고. (第18章)

위에서 본 Samuelson의 資本主義의 將來에 관한 비전에 관해서 우리의 見解를 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所謂 「Keynes派模型」에 관해서. 「Keynes派模型」 즉  $C+I+G \rightarrow C+I'+G$ ,  $C+I+G \rightarrow C+I+G'$ ,  $C+I+G \rightarrow C'+I+G$  등의 3個 政策에 의한 不況克服理論은 비록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이 Marx式 投下勞動價值論으로부터 誘導된 剩餘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는 탓으로 一般的 過剩生產現象은 說明해 낼 수 있는 能力은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로 有用한 不況克服理論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貨幣量增加에 의한 (債權買入에 의한) 利子率引下策이, 비록 어떠한 限界는 갖고 있지만, 貨幣資產 所有階級=金利生活者가 資本主義維持를 위해서 어느 程度 犧牲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間接적으로 示唆하고 있다는 것도 注目해야 할 事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3個의 不況克服政策 가운데에서 力點을  $C+I+G \rightarrow C+I+G'$  즉 「赤字財政에 의한 有効需要增大」에 두게 된다면 結局 「Keynes派模型」의 核心은 「인플레이션의 有効需要造出政策」이라고 表現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有効需要造出政策」은 (公債賣却은 잠시度外視한다.) 아무런 「構造改善」도 摸索하지 않고 손쉽게 推進될 수 있다는 利點을 갖고 있는 反面에 디맨드·풀 인플레이션을 隨伴한다는 致命的인 脆弱點을 갖고 있다. 最近, 2次大戰後 資本主義가 1次大戰後 겪었던 恐慌을 經驗하지 않고 순조로운 成長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Keynes派模型」의 덕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Keynes經濟學의 終焉」이 云謂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誘發해 놓은 物價上昇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 되고 있다. 한편  $C+I+G=GNP$ 의 全體를 說明하는 데 있어 一元의으로  $M$ 의 增加 만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너무도 極端한 貨幣主義者」도 「인플레이션의 有効需要造出政策」(但 金融שא이드만을 통한)을 主張하고 있는 點에 있어, 비록 單純商品生產  $W-G-W'$ 에 있어서만 通用될 수 있는 前 Keynes的인 貨幣數量說의 模型을 取하고 있는 時代錯誤性은 갖고 있지만, 結局 Keynes의 徒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된다. (68) 그리하여 Samuelson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 (Samuelson은 스태그플레이션을 管理價格, 디맨드·풀과 結付시키지 않고 코스트·푸쉬와 結付시키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떠한 經濟學者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病을 治療할 處方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젊은 經濟學者가 이에 對處할 수 있는 理論의 成功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

(68) 拙著, p. 292.

賞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이 말을 통해서 資本主義宗主國인 美國에 있어서의 頂上級經濟學者인 Samuelson은 當面하고 있는 資本主義의 危機 즉 스태그플레이션과 所得不平等을 解決하는 方案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告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좋은 機會를 놓칠세라 젊은 래디칼들은 「體制經濟學」의 無能을 비웃고 革新理論을 내걸고 있다. Sherman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Keynes派의 理論은 完全雇傭供給 以上の 超過需要가 發生되었을 때에만 物價上昇이 惹起된다고 하고 있다. 新古典派도 Keynes理論도, 需要가 減少되어서 失業이 發生되고 있을 경우의 物價上昇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事態는 1954年, 1958年, 1970年, 1975年の 景氣後退時의 獨占部門에 있어서의 事實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社會主義에 의한 民主主義(socialist democracy)만이 인플레이션을 克服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病을 永久히 이 地上에서 消滅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69)</sup>

그런데, 私見에 의하면, Samuelson은 「Keynes派模型」 즉 「인플레이션의 有効需要造出政策」을 止揚하고 (요즘 Keynes經濟學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의 有効需要造出政策」 때문에 死罪의 宣告를 받고 있다.) 그에 代替하는 「所得·資産平等化에 의한 非인플레이션의 有効需要造出政策」을 내 걸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一般的 過剩生産要因이 되고 있는 「過剩貯蓄」(Keynes理論에 의해서 이것을 翻譯한다면 「데플레이션 갭」)을 「所得·資産平等化를 통한 購買力增大」에 의해서 解消해야 된다는 Malthus·Hobson 즉 모세·이사야의 預言을 標榜하고 나섰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所得·資産平等化에 의한 購買力增大」를 통한 「過剩貯蓄」解消策은, ① 더맨드·플 인플레이션을 除去할 수 있고, ② 「非인플레이션의 購買力擴大」의 機能을 하게 되며, ③ 平等社會도 具現할 수 있게 된다고 主張함으로써, Marx의 資本主義의 貧困化法則(「必然」)과 平等社會의 具現(「當爲」)은 二律背反의 關係에 있다고 하는 主張에 대해서, 「必然」(貨幣購買力の 擴大)과 「當爲」(平等社會의 具現)은 一致된다고 함으로써 資本主義의 永久繁榮을 主張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Samuelson은 그러한 主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모세(Malthus)와 이사야(Hobson)의 預言書를 그가 읽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主張을 안하고 있는 것일까. 筆者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構造改善」을 主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非良心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가 「計算」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는 「平等(equality)」과 「効率(efficiency)」은 二律背反關係에 있다고 前提해 놓고 國家介入에 의하여 「平等」을 達成하려면 「不可避的으로」 「死重的 負擔

(69) H.J. Sherman, *Stagflation*, 1976, p.168, 242.

(deadweight burdens)」 또는 「死重的 非効率(deadweight inefficiency)」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공갈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up>(70)</sup> (p. 757) (2)  $C+I+G \equiv MV=PQ$ 에 관해서.  $C+I+G$  接近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데 대해서  $MV$ 接近은, 前記한 바와 같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므로,  $C+I+G \equiv MV=PQ$ 라고 하는 것은, 理論的으로 嚴密히 따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人間도 원숭이(猿)의 1種이라는 意味에서 「人間 $\equiv$ 猿」이라고 할 수 있다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도 單純商品生産  $W-G-W'$ 의 1種이라는 意味에 있어서는  $C+I+G \equiv MV=PQ$ 라는 定式도 成立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또 Hicks-Hansen diagram에 있어서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즉 그것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LM$ 曲線(猿)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IS$ 曲線(人間)이 交叉(交合)된다는 式의 理論이 된다는 말이다. 이 모두 單純商品生産  $W-G-W'$ 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을 분간해 낼 수 있는 「歷史的 展望」이 그에게 缺如되고 있는 데에 基因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sup>(71)</sup>

(70)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Keynes를 「인플레이션의 有效需要造出政策」의 發明家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若干 다르다는 것을 알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一般理論』에서 力點이 두어진 것은 ①  $C+I+G \rightarrow C+I+G$ , ③  $C+I+G \rightarrow C'+I+G$ 였으며, ②  $C+I+G \rightarrow C+I+G'$ 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생각한다. 그리고 ①의 方式으로부터 誘發되는 인플레이션도 「無機能한」 金利生活者를 「安樂死」시키고자 하는 底意를 갖는 處方에 다름이 없었다. (*General Theory*, p. 290, 376) 그리고 ③의 方式도 Samuelson式 「減稅」方法(이것은 結局 富者를 위한 措置가 된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所得·資産平等化」方法에 의해서 推進되어야 한다고 Keynes는 主張하고 있다. (*Ibid.*, p. 373) 즉 Keynes도 「所得·資産平等化」에 의한 非인플레이션의 購買力擴大政策의 提唱者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리하여 同質의 Malthus-Hobson-Keynes系列이 成立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Keynes派模型」으로서 ②  $C+I+G \rightarrow C+I+G'$ 도 成立될 수 있는데, 이 ②의 方式을 發展시킨 사람은 Keynes이라기 보다 오히려 Keynesian이었었다고 筆者는 말하고자 한다.

(71) Friedman은  $C+I+G \equiv MV=PQ$ 를 다음의 6個의 聯立方程式으로 表示하고 있다. (M. Friedman, "A Theoretical Framework for Monetary Analysis," *Milton Friedman's Monetary Framework*, edited by R.J. Gordon, 1974, p. 29)

$$\frac{C}{P} = f\left(\frac{Y}{P}, r\right). \tag{1}$$

$$\frac{I}{P} = g(r). \tag{2}$$

$$\frac{Y}{P} = \frac{C}{P} + \frac{I}{P} \quad \text{또는} \quad \frac{S}{P} = \frac{Y-C}{P} = \frac{I}{P}. \tag{3}$$

$$M^D = P \cdot I\left(\frac{Y}{P}, r\right). \tag{4}$$

$$M^S = h(r). \tag{5}$$

$$M^D = M^S. \tag{6}$$

上記 Friedman의 聯立方程式도,  $C+I+G \equiv MV=PQ$ 와 마찬가지로, 「人間 $\equiv$ 猿」 또는 「人間과 원숭이(猿)의 結合」의 前提 위에 立脚하고 있다.



## VI. 結 論

(1) M. Rossant는 「現代經濟學은 너무도 많은 緻密한 分析으로 지치고 있으며, 體系的 總合的 能力(synthetical and systematical capacity)을 喪失하고 있으며, 小局에 사로잡혀 大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sup>(72)</sup> 『經濟學』의 致命的인 缺點도 그것이 하나의 paradigm은 갖고 있지만, 「體系的 總合的 能力」즉 「論理의 힘」을 具備하지 못하고 있는데에서 찾을 수 있거나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프라그마티즘·分析主義·操作主義의 限界性이 『經濟學』에 있어, 如實히 露呈되고 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 Samuelson은 스스로를 「專門家時代 最後의 總合的 經濟學者(the last general economist in an age of specialists)」라고 稱하고 있지만, 事實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以上の 說明에 의해서 밝혀졌을 줄 생각한다.<sup>(73)</sup> (2) 資本主義를 擁護하는 데 있어 兪장사, 지계꾼도 다들 알고 있는 事項을 否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損失意識(被搾取意識)」같은 것은 「辭典」에나 있는 단순한 「말(言)」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것은 實際로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우겨댐으로써 과연 資本主義가 擁護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도리어 逆效果를 냈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이다. 筆者는 그가弄한 그러한 非現實的인 言辭가 Linder로 하여금 *Anti-Samuelson*을 執筆케 했으며 또 美國版 Marx主義 즉 革新經濟學을 發生시켜 놓았으며 또 穩健한 「近代經濟學者」Myrdal까지도 左旋回시켜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역시 「社會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은 「人間 對 人間의 關係에 있어서의 利得損失」을 올바르게 研究하는 「政治經濟學」이 되어야 하며 所謂 「非政治經濟學」(apolitical economics)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Marx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Marx를 뚫고 가야되고(durchgehen) 그를 避해 가서는(entgehen) 안된다는 것을 再三確認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資本論』百週年 紀念式席上에서 Marx를 「矮小한 Ricardo의 亞流」라고 嘲罵했던 그가 『經濟學』第11版에 있어서는, Marx를 「最大의 經濟學者」로 치켜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經濟學』의 最後의 部分에서, 「Marx主義를 Marx主義者의 손에 맡겨 두기에는 너무도 貴重하다. 그것을 통해서 主流經濟學者가—그들 自身の 利益을 위해서—그들의 分析을 嚴格한 監査에 合格시키기 위한 critical prism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Samuelson도 老年에 가서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거나 았았는가 여겨진다. (4) 그는 蘇聯에서 出刊된 『經濟學教科書』에서 展開되고 있는 「社會主義經濟學」을 純理論的 見地에서 批判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그는 하지 않고 있다.

(72) A. Levi, *op. cit.*, p. 272.

(73) *Ibid.*, p. 24.